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3년 1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8호

http://www.snu.ac.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 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702-2233 FAX: 703-0755



우리는 하나다

힘모아 “영차! 영차!”

친목 등산대회에 참석한 가족도 대열전



지난 10월 19일 5천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26회 흙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설명: 본회 林光洙회장이 합천현 소형 송용차(대우 마티즈II)에 탑승해 기뻐하는 文福剛(68년 嶺大卒) 동문. 동문 자녀들의 줄다리기(사진 左)

〈커버스토리 3~6면〉

동문출추

동문들이 모교를 찾는 것은 일종의 「귀향 행동」이다. 올해로 25회, 시월상단에 열린 동문들의 귀교 모임은 분위기가 여윌하여 포근했다. 서울대인 5천여 명 대가족이 하나의 연대감으로 엮이더니 이상스러운 일이 아난가. 모두의 귀소본능을 채워주고 모교와의 향수를 날래주는 결실의 자리였기에 그런 것이다.

근년 들어 전국 각 대학의 동문회와 동창회 조직이 유난스럽게 활발히 움직이고를 말한다. 한동안 대학의 근원으로 여겨지던 사회비리가 한 고비를 넘기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오직 자본시장 논리와 신자유주의 논리를 따르는 「대학 영업주의」가 판을 친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는 비교육적 적자생존본능이 대학을 지배하게 된 듯 착각할 지경이다. 그런

대학영업주의를 추수하여 동문회들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교에 침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지나치게 정치성을 들어내어 그 방향으로 역량을 동원하는 기미도 보인다. 그래서 동문회의 빈약한 부익부 현상의 끝이 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경향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인터넷-신매체 시대를 땀땀비행

동문들의 귀향

하는 세간 종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학연」과 「학맥」에 매달리는 병폐 역시 누구나 걱정하는 바이다. 사회조직과 정치조직, 정부기구에서 학연과 학맥은 짙긴 밧줄처럼 이어져 있다. 그런 토양을 먹고사는 세간이 「지연」이

다. 학연과 지연이 황색으로 자라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혼란한 환경 속에서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한번 되물어볼 사람이다. 동창회는 한 대학의 모든 졸업생이 모여 구성하는 조직체이다. 그 목표는 동창생 서로의 친목 및 모교와의 유대를 다지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창회는 숨쉬고 뿔뿔하는 하나의 「조직인」으로 커야 한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역할은 「모교 귀향」 모임 같은 연대적 분위기를 다지면서 모교가 후배들을 잘 키워 사회에 내보내도록 하는 측면에서 조율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학연과 지연의 악폐를 뛰어넘는 「더 큰 동창회」로 성를 자라기를 기대한다.

(續)

만든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熙, 朴世熙, 林炯斗, 崔吉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熾,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復,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林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盧武鉉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 9개월로 접어들었다.

盧대통령은 취임후 권위주의의 발과 등 과거 「재왕적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변화로 권위주의적·재왕적 리더십이 개방적·수평적 리더십으로 탈바꿈한 것을 꼽았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는 참여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최근의 몇몇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대 이하로 추락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은 용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혼선에 따른 신뢰의 상실」로 지적돼 왔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책혼선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있다」가 71%로 나타나 청와대가 모든 정책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줬다. 高建勳까지도 얼마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자신 일 정국 등 국정 혼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측근,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이 재신임을 요구한지 불과 하루만에 국정혼란의 책임을 야당과 언론에 돌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盧武鉉정부가 출범 후 대세은 화두는 참여·여·토론·개혁·통합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혁과 통합을 해나간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통합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나 연구주의로 비쳐질



국회

코드정치와 리더십



徐 道 浩
호남대 초빙교수

수 있는 코드의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국민의 참여는 없고 코드만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배신자」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코드 때문이었고, 위헌의 소지가 큰 재신임 투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도 코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주변의 일부 386세력, 즉 이념적으로는, 세대적으로는 코드에 맞는 사람들과 일한다는 이른바 「코드정치」는 자기 중심적인 패타적 사고와 검증되지 않은 국정수행능력 때문에 국가정염을 그르칠 수 있다.

코드정치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연상케 한다. 각 개인 또는 일부분에 좋은 것이 반드시 전체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바로 구성의 오류다. 예컨대 이념과 코드, 호감이 맞는 참모들이 盧대통령 개인에게는 알하기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국가 전체로서는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통령은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현의 총수다. 국가전략이란 국가가 주어진 환경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중장기적인 방책과 이념 및 수단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가전략 목표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코드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본보 논설위원)

두 논발점

우리 서울대인은 개혁의 대상인가?

최근 들어 참여정부의 주류인 386세대를 비롯한 한승연, 민노총, 교원노조, 그리고 민중연대 등 이른바 진보세력은 5060세대가 정제와 사회 전반의 뒷자리를 차지하여 군사정부 때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권력과 부를 독점해온 가독층으로서 마땅히 퇴출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울대인은 보수층 엘리트로서 이제 더 이상 학력 위주의 해를 누리지 못하게 대학평준화 또는 학력철폐와 같은 개혁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사고를 가진 인재들로 보다 참신한 조직을 재편하기 위해 기존 세력을 물갈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제도와 규제 그리고 인습과 관행이 오늘날 인터넷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개혁하는 것도 물론 일이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물고 그릇된 선별의 기준도 없이 5060세대와 서울대인을 기득권 보수층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퇴출을 시키겠다」거나 「개혁의 수단」이 불분명할 때 우리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주류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학평준화의 명분을 국민 사교육비 경감에 두고 대학입학을 무시함으로써 하고 졸업을 어렵게 하는 제도로 바꾸면 과외나 학원 같은 사교육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높은 대학졸업을 위한 과외와 학원수업이 더욱 성행하게 될 뿐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은 외국인 학교에 들어가거나 일찍 유학을 떠나버리고 학생들의 성적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개혁의 주류가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바도 아니고 보면 대학평준화의 실제 의도는 현재의 입시제도가 존속되는 한, 정제와 관계 및 법조계, 기타 사회 각계의 중요요직은 거의 서울대인이 독차지하게 됨으로 타대학 출신과 학력 없는 사람들 즉, 개혁주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요직에 발탁

하기 위한 공여지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차라리 그 보다는 인사채용의 기준을 학력위주에서 능력과 덕행과 같은 사회봉사활동에 비중을 많이 두고 시정하게 되면 대학입시제도로 차차 바뀌게 되고 사교육의 폐단도 점차 줄어들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주류가 좀더 현명하다면 대학평준화보다는 대학의 질을 극대화하는 일에 주력해 우리 나라 유일의 두뇌집단인 서울대를 개혁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할 것이 아니라 세계 유망대학과의 경쟁에서 단연 우위에 올라 명성 높은 세계적 대학이 되도록 시설투자를 더욱 확대하면서 채적화하는 것이 옳은 길 일다.

스스로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류와 최고로 도약하려는 우리 서울대와 서울대인이 결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아직도 은밀히 부정부패와 비리를 화해하고 있는 장·재계 인사들이다. 그리고 세계화를 외면하고 민족공조라는 명분으로 북한 공산 정권을 비호하고 남남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코드 맞추기와 편가르기에 열중하고 있는 설익은 진보집단임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서울대인들은 옳은 충언으로 집권자의 잘못을 바로 잡자는 못할지언정 권력의 횡포와 부당성을 풍조하고 두둔하는 언동으로 후배들에게 목격는 것을 더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黃 正 植
(57년 文理大學)
경남신로
칼럼리스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대성황
林호장 “기을 정취에 젖어 우정·사랑 재확인”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10월 19일 5천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출커밍데이 겸 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부터 관객컴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용 마친 물론 기적들의 집고 모든 성악과 기악교수의 정년퇴임기념 CD를 기념품으로 받고 모교 재학생들의 인솔로 공연을 시작, 농생명학교대학, 신소재공동연구소를 지나 관악산 입구에 접어들어 아카시야 동산, 제4야영장, 루너미 고개를 넘어 안양의 농생대 수목원에 도착해 준비된 점심식사를 들었다.

본회 肝 廟사무총장의 개회선
언에 이어 林光洙회장은 대회사
에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
어는 「아침 공기는 맑게하거나
우울하며 그 전날의 기분을 완
전히 소멸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했다」며
「금년에는 우리에게 좋은 날보
다. 어려웠던 일이 많이 있었던
만큼 구름 한 점 없는 청공을

바라보며 한때나마 울적했던 심
사를 깨끗이 씻어버리자.고 말
했다.

또한 '오래만든' 만난 친구들
과 정감 있는 인사와 이야기들
나누며 모처럼 맑게 물들어 가
는 가을 정취에 흠뻑 젖어 동문
과 가족들이 함께한 날들이어서
우정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듯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걸어
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사회와 빛이 되기 위해 더욱 정
진하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란
다고 격려했다.

이 스스로 생각하고 기존의 사
고에서 새로운 틈새를 찾아내는
지식창조자로 변모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교가 세계 Top 10』 대학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동문 모두가 내일에 대한 꿈과 깊은 해안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회 孫—根상임부회장의 해
사 결과보고에 이어 林光洙회장
이 모교 동생대 金星—(80년 農
大卒)교수에게 나무이름과 제작
지원비로 글씨본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재미동참회 吳鼎昨 회장, 李英默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재미동참회보 方錫勳 단원위원장, 任洛均 평판위원장, 羅哲三 주필, 시가교지부동참회 張基南 회장, 뉴욕지부동참회 李典九 전임회장 등이 차례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애공을 격려를 보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2부 「전통과 단장의 시간」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莊實久(182년 鄧大宰)·동문 이 진홍을 앞뒀으며, 황새에 앞서 곰대 成宏模(65년 工大宰)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김무균·색소폰 양삼철이 합창과 가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주를 선보였다.

참석자들은 단과대학별 장기자랑 대회, 떡 먹고 휘파람 불기, 달리기 대회, 림보게임,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통해 짜릿한 상품을 받았으며,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페인팅 코너 및 어린이 댄스경연대회도 마련돼 가족 모두 재미가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모교 댄스스포츠 동아리

「피에스타」에서 남녀 각각 다섯
팀이 출연해 경쾌한 음악에 맞
춰 살사댄스를 선보이며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예언과는 달리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대부분의 참종자들은 신사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시설 면에서 예언보다 더욱이 더 높았다고 한사를 이기지 못하였다. 특히 그동안 가장 많은 불만을 겪었던 화장실 문제를 개선, 이동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불편으로부터 많은 반향을 얻었으며, 이날 처음 선보인 몽골반과 스라방의 판매는 물론 가족들이 쾌적한 식사와 행사를 관람하기 위한 안심맞음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최근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를 위해 金道和·金相慶·白樂院·姜信浩·具

平會고문을 비롯해 2백여 명의 동문이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었다.〈협찬자 명단 5~6면 참조〉

많은 동문 가족들의 관심을
모은 경포초청에서 본토 林光遠
회장이 협찬한 호수 송유기대
우 마티즈II)는 文福廟(68년 德
大幸)동문, 롯데관광 金基炳와
柳承烈(7기 EPHPM)동문,
SBS 尹世榮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TV는 鄭鎭勳(66년 音大)동
문에게 돌아갔다. 특히 작문
에 심정진가 尹鍾龍부회장이 협
찬한 기념장갑고를 받은 바 있는
는 朴智順(94년 自然大)동문
이 올해에도 尹鍾龍부회장이 협
찬한 드림세탁기를 받아 뿌리
을 샀다.

《表》

재미동창회 임원 방한

간담회·환영만찬·골프대회 열려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재미동창회 임원이 모교와 본회를 방문, 간담회 및 골프대회를 열고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단은 재미동창회 및
興祚회장 부부를 비롯해 李英默
수석부회장, 재미동창회보 方錫
勳편찬위원장, 任洛均위원관완위
원장, 羅哲三주필, 趙武相편
찬위원, 李典九 前뉴욕지부 동
창회장(뉴욕글프센터 사장)으
로 구성됐다.

공식일정 첫날인 17일에는 모교를 방문해 鄭寶燦총장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모교 규장각, 박물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둘러본 후 鄭明熙부총장 주관으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 모교와 재미동참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만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孔大植부회장, 모교 柳根培기획실장, 金完顯인화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튿날 본회 林光洙회장 초청
으로 신문로 「황원」에서 열린
간담회는 재미동창회 임원을 비롯
해 孫一相상임부회장, 尹勤鐵
韓斗鐵, 孔大禧부회장, 朴英俊
감사, 약대동창회 李禧植회장,
동창회보 李炯旭, 南仲九는설우
원, 許 顯서무총장, 禹仁性이
사, 모교 鄭明熙부총장 부부,
제미동창회 金建鎔전위원장

(중앙일보 미주법인 부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오랜 여독을 풀고 고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林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게 재미동창회 회장단이 구성된 이후 동창회보 발간과 홈페이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 LA지부 동문들께서 보여준 열정과 단합된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결실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동물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LA지부가 선두주자가 되어 해외지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일에는 **최희창** 초청으로 재미동맹회 방문단을 비롯해 본회 **金在鴻**에외장, **韓吉謙** 孔大權, 洪性大 外務長, **朴英俊** 金士, 사대동맹회 辛東一 外長, **鄭昌희** 金仁圭는설위원, **홍성** 性士, 재미동맹회 **金建鎭** 金建鎭 전위원, **許 翬** 사대동맹, **교교** 鄭熙熙 鄭熙熙 부총장 부인 이송희 여사 등이 초청 구경한 CC에서 친선 동맹회를 가졌다. 이후 **최희창**이 제공한 푸짐한 충정도 음식들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車}



제25회 흙커밍데이 한마당

〈화보〉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마치고.



페이스페인팅으로 멋을 내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산길을 걸으며.



질서있게 준비된 점심과 음료를 받고.



재학생의 살사 댄스를 감상하며.



색소폰 앙상블의 연주를 음미하고.



림보게임으로 체력을 확인해보는데.



자리 뜨지 않고 경품권을 확인하시라.



포대 입고 힘차게 달려도 보고.



올해 1등은 「나」라고!

동산대회 합찬 동문

지난 10월 19일 보고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에서 거행된 제25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동산대회에 5천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으며, 참석자들은 10월의 가장 화창한 가을날씨 속에서 변함없는 친목과 우의를 다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목 동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위해 협찬금·품을 출연해주신 각계 동문들을 소개한다.

—지면 관계로 동창회 임원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道根  47년 法大卒·本會顧問 변호사 일금 2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顧問 상암시 회장 일금 20만원	白樂院  51년 醫大卒·本會顧問 인제회관 이사장 일금 2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顧問 동아제약 회장 홍보주 3원5백원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顧問 LG-Caltex 가스 명예회장 일금 50만원	金在淳  51년 商大卒·本會名譽會長 생터서 코넬 오더오 1대	鄭雲燦  70년 商大卒·本會名譽會長 보교 총장 독서대 3백개
林光洙  52년 工大卒·本會會長 임광토건 회장 소형 승용차 1대	孫一根  51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 한국일보 상임고문 김지녕장교 1대	李禮植  49년 藥大卒·藥大同會會長 구동제약 회장 일금 50만원	明泰鉉  50년 工大卒·延佑會理事 詢奎원기업 대표 일금 20만원	鄭哲圭  52년 工大卒·延佑會理事 신일자동차 이사장 일금 30만원	朴晟容  50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금호그룹 명예회장 국제 왕복항공권 2인 3배	韓斗鎮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한국병원 원장 일금 50만원
徐延和  5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李信子  55년 美大卒·美大同會會長 예술원 회원 일금 50만원	李海遠  5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한국우체국 회장 일금 20만원	李吉女  57년 醫大卒·本會副會長 경원대 총장 일금 1억원	朴熙伯  57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박희정철학과의원 원장 일금 50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전자 회장 일금 60만원	成百詮  56년 工大卒·工大同會會長 한국과학기술공사 회장 일금 30만원
裴命仁  56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일금 50만원	趙南煜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상무토건 회장 일금 5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사강 회장 일금 50만원	李相赫  58년 法大卒·法大同會會長 고려학도협동사무소 변호사 일금 30만원	辛東一  58년 師大卒·師大同會會長 성문통신산업 회장 김지녕장교 1대	朴嬢實  60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박산부인과 원장 일금 50만원	金讚淑  60년 農大卒·本會副會長 장아치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金宗鎬  5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具聖會  59년 師大卒·保人院副會長 서울보건대 학장 일금 3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本會副會長 일동제약 회장 이로나인플로 60개	梁源植  61년 農大卒·農大同會會長 모로 명예교수 TV 1대 일금 50만원	孔大植  60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형테크시스템 사장 일금 50만원	郭永駟  60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일금 5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CI 회장 CI의사상표권 10대
安秉勳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조선일보 부사장 일금 50만원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SBS 회장 디지털TV 1대	姜榮國  62년 工大卒 퍼레이드부산호텔 사장 호텔 숙박권 2인 2배	沈利澤  6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한항공 사장 국제 왕복항공권 2인 3배	洪性大  63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상산산업 이사장 DVD 복사기SET 1대	安聖哲  63년 法大卒·延佑會理事 유나온테크 회장 일금 50만원	孫吉承  63년 商大卒·本會副會長 SK 회장 워커히호텔 식사권 5배
曹甲周  63년 商大卒 신승시흥 회장 나들이SET 60개	趙炳祐  64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유동상업 회장 일금 50만원	李典九  64년 農大卒 뉴욕골프센터 사장 일금 50만원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일금 5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대림정보병원 행정원장 일금 50만원	姜光彦  65년 工大卒 롯데호텔 대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대	李哲雨  65년 農大卒 롯데호텔 롯데마트 사장 롯데리아 멤버십 교환권 30대
金英大  6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대성그룹 회장 세계NET 6개	朴容晟  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금 50만원	尹鍾龍  66년 工大卒 삼성전기 부회장 느림배터리 1대	朴英俊  66년 商大卒·本會監事 박영회복지사무소 대표 일금 50만원	韓秀吉  66년 商大卒 롯데제과 사장 스넥류 3천원 일금 20만원	李燦河  67년 經大院卒 신한회계법인 대표 일금 50만원	金基炳  67년 行大院卒 롯데관광 회장 무엇 여행권 2인 1배
許瑄  68년 文理大卒 본의 사무총장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2대	李相暎  69년 農大卒 농협중앙회 상무 골BOX 30개	金建中  70년 文理大卒 LG칼텍스정유 사장 수유권 5만원권 6대	金泓殖  71년 經大院卒 금복주 회장 소주 1천원 일금 20만원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중앙그룹 회장 가스오븐렌지 1대	金周亨  73년 農大卒 CJ 사장 CJ사물SET 20개	朱成民  73년 法大卒·本會監事 김오정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금 50만원

朴柱鐸  74년 商大卒·冠岳會理事 한국기술포럼 회장 일금 50만원	崔炳敏  75년 文商大卒 대한벨트 사장 불타슈 1천개 일금 50만원	鄭忠始  7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오미아코미야 사장 일금 50만원	劉俊烈  77년 社會大卒 타이젠 사장 벡독만 3월	金河俊  77년 師大卒 예외개발 사장 연교·영양제 각각 1백50개	表文洙  74년 農大卒 SK텔레콤 사장 휴대폰 3대	韓基仙  78년 師大卒 OB맥주 수석부사장 맥주 5원권
洪錫珪  79년 社會大卒 보광 통영시장 메니스마크·콘도이용권 5대	柳津  83년 人文大卒·本會副會長 종상 회장 일금 50만원	尹在勝  86년 法大卒 대웅제약 사장 비타민영양제SET 20개 일금 50만원	金澤辰  89년 工大卒 엔씨소프트 사장 일금 1백만원	金秉順  4기 AMP·冠岳會理事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50만원	姜聖模  17기 AMP 런나이코리아 회장 편버너 20개	金斗煥  17기 AMP 한국파장통 사장 파장통SET 30개
鄭道憲  50기 AMP 동아나라 회장 어린이용 종이접기 1천개	姜顯松  53기 AMP 회진그룹 회장 미국세우SET 1백개·일스직 1백50개	鄭八道  1기 AIP·冠岳會理事 종인 회장 일금 50만원	文憲一  6기 AIC·AIC同窓會理事 문헌지니어링 대표 일금 30만원	尹勛(회장 尹勳煥) 일금 50만원 주식상영과대학동창회	劉錫(회장 劉錫煥) 일금 50만원 서울고려대학동창회	윤기대(회장 尹基大) 일금 50만원 윤기대학동창회

합천하주서서 감사합니다

朴相干 62년 法大卒
鄭永燮 68년 行大院卒
(30만원)

宋仁相 35년 商大卒
徐柱成 47년 商大卒
權壽赫 47년 醫大卒
李錫允 50년 文理大卒
申亮秀 50년 醫大卒
安哲浩 52년 工大卒
梁文奎 48년 工大卒
鄭完圭 52년 文理大卒
李相胤 54년 工大卒
金錫洙 55년 工大卒
徐庚錫 56년 工大卒
金錫卿 56년 法大卒
田文輝 57년 工大卒
鄭然世 57년 工大卒
朴孟浩 57년 文理大卒
朴廣大 57년 商大卒
李升雨 57년 商大卒

潘尙炫 57년 醫大卒
朴世熙 59년 文理大卒
申允植 59년 文理大卒
金永均 59년 法大卒
申復謙 59년 商大卒
池昌壽 59년 商大卒
李承俊 60년 工大卒
崔鎮宇 60년 工大卒
黃海根 60년 工大卒
李昌遠 60년 法大卒
林泰洙 60년 法大卒
金圭甲 61년 工大卒
姜贊旭 61년 文理大卒
林阿斗 61년 文理大卒
白世炫 61년 法大卒
金東吉 61년 師大卒
尹炳和 62년 工大卒
鄭國煥 62년 農大卒
咸承浩 63년 工大卒
李鍾哲 63년 美大卒
趙興泰 63년 師大卒
鄭元鎭 63년 師大卒

李梁成 63년 商大卒
李宗郁 63년 醫大卒
李茂振 64년 農大卒
南仲九 64년 文理大卒
嚴秉潤 64년 文理大卒
李文浩 64년 法大卒
尹龍錫 64년 師大卒
洪性圭 64년 商大卒
李林澤 65년 工大卒
李宗淵 65년 工大卒
梁圭模 65년 文理大卒
金孝成 65년 法大卒
宋鎮勳 65년 法大卒
尹正哲 65년 醫大卒
金聖中 66년 工大卒
柳鳴夏 66년 農大卒
李仁基 66년 文理大卒
林義昌 66년 文理大卒
沈勳 66년 農大卒
李壽一 67년 工大卒
金夏寅 67년 文理大卒
趙武濟 67년 同大院卒
金忠煥 67년 商大卒
李相熙 68년 文理大卒
金日權 68년 法大卒

李雨雨 69년 工大卒
李秉宰 69년 經大院卒
李成俊 69년 文理大卒
孫智烈 69년 法大卒
李根植 69년 法大卒
李品載 69년 商大卒
宋志午 70년 工大卒
李慶衡 70년 文理大卒
金敏子 71년 家政大卒
金仁俊 71년 商大卒
鄭明熙 71년 醫大卒
吳經洙 72년 工大卒

李顯載 72년 文理大卒
鄭相明 72년 法大卒
黃俊烈 72년 音大卒
鄭奇洪 73년 文理大卒
徐玉姬 73년 文理大卒
元世勳 74년 法大卒
李斗憲 74년 行大院卒
朴聖熙 77년 家政大卒
李載哲 77년 法大卒
崔準杓 78년 獸醫大卒
曠昌宰 78년 醫大卒
朱昌昊 83년 自然大卒

趙乃燮 31기 최고경영자과정
崔英主 37기 최고경영자과정
文品珠 21기 최고경영자과정
李永健 45기 국가정책과정
(20만원)

朴鍾五 60년 文理大卒
李南龍 65년 農大卒
孫敏榮 71년 工大卒
李廷植 73년 農大卒
金忠環 77년 社會大卒
(10만원)



“충남지역 여성동문이 모인다”

대전·충남지부 여성지회 추진
초대 회장에 吳世和동문 추대



지난 10월 13일 대전지방법원 부근 일식당 「자중해」에서 대전·충남지부 여성지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충남지부 吳熙濤 명예회장, 鄭宗禎 고문, 吳應準 회장, 金星鍊 간사장, 張文熙 총무간사, 田康秀 섭외간사를 비롯해 한국화학연구원 吳世和(65년 文理大卒)·李維廉(77년 自然大卒)·李美惠(83년 師大卒) 등등, 충남대 金在淑(66년 家政大卒)·丁英姬(72년 家政大卒)·金美利(79년 家政大卒)·洪壽姬(79년 家政大卒) 교수, 대전대 林英姬(67년 師大

卒) 교수, 배재대 劉順愛(74년 文理大卒) 교수, 새서울대과 劉應鍊(87년 醫大卒) 원장 등 10여 명의 여성동문이 참석했다.

張文熙 총무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소개에 이어 吳應準 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서울대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면서 명확하고 있는 여성동문들의 모임이 지부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회장 임기동안 펼쳐나갈 「조직 강화, 기금 확충, 친목 도모」 등의 역점사업에 여성동문들의 끊임없는 관심

과 성원을 부탁드리다」고 강조했다.

吳熙濤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대전·충남지부가 1970년 9월 결성된 충청권회의 지방지부 가운데 효시인데, 이제 또 지방지

부 가운데 처음으로 여성지회의 창립을 보게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하고 「예전에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래알에 비유했지만 이제는 동치반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성지회 초대 회장으로 한국화학연구원 吳世和 동문회화연구부장을 추대하고 총무로 충남대 洪壽姬 교수를 선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해 임원진을 인준하기로 의결했다.

공식 행사를 마친 후 민찬에 앞서 鄭宗禎 고문이 건배제를 통해 「하늘이 무너져도 정치는 세워라」라는 법과대학 표어를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 나라의 경제는 물론 모교와 동창회를 잘 세우자」고 외쳤다.

재미동창회 李英默수석부회장

소설 「위성탄의 도박꾼」 펴내
수익금 전액 재미동창회에 기탁



지난 10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재미동창회 李英默(63년 二大卒) 수석부회장이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위성탄의 도박꾼」을 비롯해 일곱 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된 이번 저서는 1백주년을 맞은 미국 이민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담겨 있으며, 매일 교포신문이나 주간지에 게재되는 성공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면서 을지의 삶을 살아가는 일그러진 군상들을 조망하고 그려냈다.

반희 許 瓚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가족 및 내빈 소개, 본회 林光洙 회장·재미동창회 吳興祚 회장·미주 이민 1백주년 기념 사업회(위성탄) 朴允洙 회장 축사, 소설가 洪向和(59년 商大卒) 등문의 작품 소개, 축하 국악 연주, 저자 인사, 본회 閔丙晳 부회장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李英默은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교를 졸업했으며 1966년 해군 제대 후, 서울 근교에 위치한 삼일수출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1979년 미국으로 이민가 워싱턴에 정착, 1992년까지 플로리다 캐리비안 섬들을 대상으로 실크, 가죽 제품 등의 수입 도매업에 종사했으며, 현재는 식품제조 및 슈퍼마켓 운영업체인 「카사블랑카」를 경영하고 있다.

李英默은 이번 소설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재미동창회 발전 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본회 林光洙 회장을 비롯해 孫一振 삼일부회장, 尹勳煥 閔丙晳·孔大植·趙炳祐 부회장, 사대동창회 崔泰祥 전임회장·辛東一 회장, 재미동창회 朴允洙 초대 회장, 吳興祚 회장, 方勳勳 회보편찬위원장, 任格均 편찬위원장, 趙武相 편찬위원, 羅新三 주필, 인터비즈니스팀 厲仁性 회장, 안민변호사 등 1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제10회 총동창회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41개팀 참가

지난 10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제10회 총동창회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가 개막식 일었다.

본회 孫一振 삼일부회장(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대회에 출전한 41개팀은 정정당당한 플레이를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삼일부회장은 林光洙 회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스포츠 정신을 지게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하고 만년에 패하더라도 것에 승복한 줄 아는 정신을 배우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야구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 출신팀 김영태군이 대표로 선서를 했으며, 孫삼일 부회장이 야구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체육교육과 申仁淵 교수가 격려금을 전달하고 시구를 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41개팀은 4개조로 나눠 토너먼트 형태로 예선전을 치렀으며, 오는 11월 17일 결승전과 폐막식을 가진다.

치과대학

제1회 학술대회 열어

치과대학총장회(회장 梁漢綱)는 지난 10월 26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코엑스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梁 회장은 이번 행사를 기회로 해 된 배경에 대해 「치의학의 연구수준과 치과임상의 논문발전을 접하면서 21세기에 우리

나라 치의학의 리더로서 위치를 굳게 지켜 나가기 위해 학문들의 양어에게 달려있음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임상에서 개원의들에게 꼭 필요하고 관심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연재들을 임신하여 환자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되고, 최신 치과임상에 대한 지식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각 강연마다 연자, 패널, 진행학술위원 등 총 3명이 출연해 50분간 발표 및 질의시간을 가졌으며, 모교 金泰佑(83년卒)·趙炳熙(84년卒)·李鎮熙(85년卒)·李庸武(91년卒)·明 勳(95년卒) 교수, 강북삼성병원 李鍾輝(79년卒) 교수, 崔成奎(79년卒) 치과위원장, 삼성서울병원 林淳鎔(79년卒) 치과전담부장, 수치과병원 金善榮(83년卒) 대표인장, 에버플러스 鄭京恩(85년卒) 치과위원장, 여의도·광화문 예치과 崔相壽(86년卒) 원장, 高顯慶(91년卒) 치과위원장 등이 참석,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학술회원회 權玟洋(80년卒) 부회장, 成茂慶(81년卒) 이사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3백여 명의 동문 및 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한)

간호대학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약정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澈子)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극장 앞 잔디밭에서 李正姬·朴長子·金彩盈·郭月熙 부회장, 朴贊愛 삼일부회를 비롯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유회 및 베품시장을 개최했다.

오후 처음으로 실시된 베품시장은 짧은 준비시간과 홍보 부족으로 기증품이 예상보다 적었으나 시중 가격의 50%로 판매하는 등 만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좋은 호응을 얻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관악산을 등반하고 李淳行 동문의 사회로 율동과 각종퀴즈, 게임 등을 즐겼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방문의 날 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모교 발전기금

사무원, 규장각, 중앙도서관, 박물관을 견학한 후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俞澈子 회장 초청으로 환영 오찬 뷔페를 들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崔京福(73년卒) 동문이 「Investigation of Health Care Facilities」, 崔璣珠(73년卒) 동문이 「Nursing Management」, 李仙玉(73년卒) 동문이 「원격 간호교육」, 姜彩盈(73년卒) 동문이 「서울대병원 Nursing System」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호암교수회관에서 洪京子 학장 초청으로 만찬과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졸업 30주년을 맞은 동원회가 모교 尹勳勳 부회장에게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을 지원해줬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전달했다.

(한)

부산지부

제4회 등산대회 겸 야유회 열어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鎭)는 지난 10월 19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입기리 백양농원에서

2백6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등산대회 겸 야유회를 개최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참가 부락출발, 백양농원에 이르는 2.5km의 거리를 등반한 동문 가족들은 줄다리기, 밭아구, 보물찾기, 풍선게임, 사생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날 점심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도서 생활권 등 여러 가지 행운권을 선사했다. 한편 부산지부동창회는 오는 12월 8일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수의과대학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시상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祐宰)는 지난 10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장하재단 鄭英彩이사장, 全東龍(56년卒)·林永一(64년卒)·白文英(68년卒)·魚重元(69년卒)·李角模(69년卒) 부회장과 동문 1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2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에 메고별대 수의과대학 鄭英彩(63년卒) 교수를 선정,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鄭英彩을 대신해 미국에서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權泰三

(77년卒) 동문이 상패를 받았다.

특히 鄭英彩은 국내 수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수의사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발전 및 학문에 도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64학번 동기회(회장 任貞守)와 78학번 동기회(회장 徐廷堯)가 각각 5백만원, 鄭英彩이사장이 1백만원의 장학기금을 동창회에 기부했다.

약학대학

스탬프앨리·운동회로 '한마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禮植)는 지난 10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모교 朱南求학장, 식품의약품안전청 沈昌求청장, 대한약사회 元壽鎭부회장을 비롯한 동문 및 가족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25주년을 맞은 32회 동기회(회장 李炳星)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배구·축구·파쿠로 등을 쏜 뒤 모교 곳곳을 견학하는 스탬프앨리 이벤트를 즐겼다.

출발지에서 지도를 받은 동문 가족들은 사진보드에 화합 메시지를 적기, 가족의 소원을 비는 연아리 동전던지기, 보물찾기, 가족이야기 소개 등의 코너를

마치며 기념품을 받았다. 이어진 평강 운동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해프닝 릴레이, 진가록 경연대회, 한마음 구기대회가, 출발 OX퀴즈, 장재물놀이 게임으로 전력을 다졌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李禮植회장이 칼라TV를 합찬한 것을 비롯해 李金鎬(59년卒·일동제약 회장)·李世榮(61년卒·삼익제약 대표)·崔植植(64년卒·중외제약 총괄부회장)·李奎鎬(65년卒·약사관련 주간)·李在元(67년卒·부광약품 사장)·金智鎭(74년卒·중외제약 전무)·崔昌鎭(74년卒·유한양행 전무)·李佑宰(78년卒·대림양제약 사장)·韓圭弘(78년卒)·姜美樂(80년卒) 등 동문 등이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다.

신영 통정총장 인·단·투

교육대학원 동창회 咸鍾漢회장

“동문들 작은 한마디에도 귀 기울였다”

지난 9월 20일 열린 교육대학원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咸鍾漢(70년 廣大卒·(사)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이사장) 동문이 선임됐다. 이에 咸鍾漢을 만나 동창회 운영 계획과 앞으로의 각오 등을 들어보았다.

—동창회 소개—

「한시적인 동창회 즉 1975년도에 교육대학원이 사라지게 돼 더 이상 신입생을 배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도 더 이상 늘지 않는 일시적인 동창회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동창회라서 그러한 동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현재 우리 동문들 대부분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고 인원수는 7백명 가량 됩니다.

—취임 소감과 각오 한마디.

「국회의원으로 봉직할 때 어떤 자리에 올라갔으면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펼쳤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 문제로 바쁜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사의 자질과 소명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죠. 이런 패일



수복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모교에 교육대학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역사로 끝난 교육대학원이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동창회 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회장님들께서 한 해 주셔서 어떻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많은 회원들이 동창회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동문들간에 동창회의 필요성과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행복한 세상을 사는 데에는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여럿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점들을 함께 헤쳐나가면 슬기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동문들이 깨달으려면 서로 자주 만나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등산대회 개최와 소모임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동문들에게 한 마디.

「한 나라의 지도자는 나무꾼의 한숨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바람에 스치는 풀잎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동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하고 이를 수렴해나간다면 사회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교육계와는 인연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제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계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과 현재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이사장으로서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들을 위해 힘써 노력할 계획입니다.

咸鍾漢은 1972년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삼척대 부교수, 강원도 지역개발평가 교수, 농촌청 소년교육협력 소장, 제12·13·15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명지대 객원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나라나눔 총재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후)

환경대학원

건교부 崔鍾璫장관 초청 강의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는 최근 소금동 롯데호텔 별墅에서 崔鍾璫부회장, 禹賢仙·趙榮進부회장, 모교 金安濟 명예교수, 金丁勳전장, 金柱洙 교수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교통부 崔鍾璫(72년 商大卒) 장관(사진)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주택본재, 안전정책, 국토의 균형발전, 재산권문제 등 대학원의 주된 관심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강연을 해 동문들의 관심을 모았다.

崔장관은 강연을 마치면서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살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나라가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세로로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관악기숙사 앞 운동장에서 흙길대회가 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피구, 줄다리기, 제기차기, 4백미터 계주, 2인3각 등 다채로운 경기가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조정환과 동문들이 단체 우승을 차지해 푸짐한 기념품을 받았다.

생활과학대학

회원 명부 발간 예정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劉鍾玉)는 최근 대학교 소세 평창수산에서 간사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998년 이후로 발간되지 않았던 회원 명부를 재정비해 오는 2004년 정기총회에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새로 발간되는 회원 명부는 기존의 졸업년도순이 아닌 입학년도순으로 동문들의 명단을 기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表)

정치·외교학과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해양법 강의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박정호)는 최근 소공동 롯데호텔 별부관에서 초간선미나를 개최했다.

모교 안동고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유엔산하 국제해양법연구소 박정호(59년文理大卒)에 관한 특별연사로 초청, '북방해 해양법상의 문제'라는 주제로 독도 영유권, 보물선 소유권, 서해오 도서, 종군위반 관련 현안청구권 문제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연을 펼친 박정호 교수는 한국 해양교통로인전연구회 연구위원, 대평양과학대학조직원회 사무총장, 고려대 국제법률연구소·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해양법학회 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부경대·건국대 석좌교수를 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김재태·姜信澤 명예교수, 李正觀 교수님 비롯해 도서출판 분화공간 林升準 대표, 세종대 南時旭 석좌교수, 재일동포고령자자기 한국위원회 李德淳 회장, 고려대 白完基 명예교수, 金漢燕 前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미디어리서치 鄭九福 회장, 낫스 高一男 고문, 서울디지털대 宋復석 교수, 연세대 柳永益 석좌교수, 李克周 세무회계사, 河津準 前효성그룹 부회장, 서울고대 李澤勳 교수, 한강고교 金衡烈 부사장, 극동상공 金鶴시장, 세립테크 鄭義興 회장, 교통개발연구원 李富權 원장, JET스스로방수 張重雄 대표이사, 한림대 金浩昌 교수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耳順테니스회

건강·친목 모임 40회째 맞아



이순테니스회(회장 金明煥)는 지난 10월 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제40회 정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순테니스회는 고희조 및 이순 A·B조로 나뉘어 경기를 치렀으며, 고희조 金明煥(51년文理大卒)·車載浩(56년文理大卒) 동문, 이순 A조 金孝成(55년工大卒)·黃慶龍(58년文理大卒) 동문, 이순 B조 金元元(56년繼大卒)·韓榮成(63년文理大卒) 동문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희조 준우승: 馬勝勳(48년工大卒)·全錫烈(48년工大卒) 동문, 3위: 金善吉(52년商大卒)·鄭寅被(57년繼大卒)·李順允(57년繼大卒)·裴仁河(66년文理大卒) 동문, 3위: 李炳允(57년繼大卒)·李順允(57년繼大卒)·李順允(57년繼大卒) 동문, △이순 B조 준우승: 趙勝鎰(49년醫大卒)·成旭基(57년商大卒) 동문, 3위: 高錫福(50년文理大卒)·韓甲洙(55년醫大卒) 동문, △인기상: 崔錫輝(55년藥大卒) 동문, △김투상: 朴仁鎰(57년師大卒) 동문.

기계동문회

재학생 7명에게 장학금 지원

기계동문회(회장 姜海勳)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지나하루스에서 동문 및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 겸 단원대회를 개최했다.

최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렴성뿐 아니라 일부 재학생까지 공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동문들의 힘이 필요할 시기'라며 '동대생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동문들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03년 결산보고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 姜海勳 회장은 모교 기계공학동문회(학부장 李東昊)에 5백만원의 지원금을 전하고, 학부생 김영진·김현욱·김진한·최준보·이승훈·최민호·김수현 군에게 각각 1백만원씩 총 7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4·19탑 광장에서 朴慶秀(89卒) 동문의 사회로 OX퀴즈대회, 줄넘기 등 다양한 오락행사를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호주 시드니지부

承源弘희장 본회 방문

지난 10월 9일 호주 시드니지부 부동장 承源弘(74년文理大卒) 회장이 본회를 방문, 본회 孫一振 상임부회장과 許憲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孫상임부회장과 承源弘은 그간 호주 시드니지부동창회 동문의 활동 사항과 지부동창회 운영에 대한 여러 질문을 나누면서 동창회 발전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承源弘이 그동안 해외동포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으로써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높인 李敬宰(56년師大卒·호주한인복지회) 동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좋겠다고 요청해 본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李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상대 27회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

상대 27회 동창회(회장 李熾煥)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동문 1백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30주년 축하행사를 개최했다.

부부동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李熾煥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차승철 학장 및 李之錫 학부장 환영사와 모교 趙淳·趙南尹 명예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李熾煥 회장은 이날 참석한 모교 趙淳·趙南尹·沈明求·林禧哲·朴宇熙·金植政·金昌均 명예교수, 鄭基俊 교수에게 사은품을 전했으며, 차승철 학장 및 李之錫 학부장에 각각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원예학과

전임 회장 감사패 받아

원예학과동창회(회장 田永秀)는 최근 모교 수원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야외회를 가졌다.

모교 李昇九 학과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날의 일정을 통해 장화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기금확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田永秀 회장은 모교 김경수(3년)군, 하현욱(4년)양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그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崔海元(74년卒·LNN Consulting 대표)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바로 잡습니다 -

지난호(제307호) 5면에 게재된 洪福龍 회장 방문기 인터뷰 기사 중 洪福龍 동문은 법무부 검찰관장, 洪福龍 동문은 보훈총관 사장으로 정정하고, 삼성전사 '李在憲' 상무를 '李在鎰'로 바로 잡습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李明博 서울시장 초청 특강 가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趙炳南)는 지난 9월 30일 뉴서울CC에서 모교 姜錫美·姜泰昌·吳亨植 교수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24기 동창회(韓順模·邊大煥·徐泳培 동문)가 단체상을 수상하며 상금 1백만원을 받았으며, 개인상에는 姜卓明(16기) 동문, 메달리스트에 남코스 朴碩伊(23기) 동문, 북코스 徐泳培(24기) 동문이 각각 선

정했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 준우승: 15기 동창회(姜錫大·金順吉·李炯衛 동문), 3위: 14기 동창회(韓錫燮·玄仁周·崔錫五 동문), △개인 준우승: 崔益善(25기) 동문, 3위: 金庚庚(23기) 동문.

한편 지난 10월 14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이날 서울시장 李明博 시장이 「세계 인류의 환경도시를 위한 서울시 정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국가정책과정 51기

새 회장에 吳福龍 회장 선임

국가정책과정 51기 동창회(회장 李龍九)는 최근 강남소재 한정식집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吳福龍(한국토지신탁 고문) 동문(사친)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趙永元(KT&G 감사위원) 동문, 사무국장에 李惠善(사회 회장) 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또 참석자들은 2004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격렬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고, 금강산 견학 및 단체 해외연수를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表)

2004년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립니다.

이날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Soft Cover를 사용함으로써 부피와 크기를 최대한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동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11월 초순부터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申甲申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모교소식

개교 57주년 기념식

鄭총장 “환경 친화적 에코 캠퍼스 만들겠다”

李吉女·洪羅禧동문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시상



모교 개교 57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振상임부회장, 모교 鄭義雄총장, 李賢宰·趙完圭·李基俊전임총장, 鄭雲樞총장, 鄭明熙부총장, 모교 洪福桂기성회장, 李文鎭·卞柱仙동문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사회대 자리학과 金仁교수 등 20명이 30년 근속,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吳世榮교수 등 1백11명이 20년 근속,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직원 朴仙宇씨 등 57명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또 관악봉 사상은 학생부문에 오유나(인문대 2년)양을 비롯한 4명과 후원자 부문에 30여 년간 농구부에서 자원 봉사해온 張甲順(49년 肅大)이 코치가 수상했다.

이어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걸명대 李吉女총장, 洪羅禧호암미술관장을 선정, 증서와 기념패를 전달했다.

鄭義雄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모교를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의 입학과 학위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과 기숙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은 이제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환경 친화적 에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해방 후 격동기에 탄생한 모교가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기반을 굳게 지켜올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 매

김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학교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나날이 지적 인프라가 충실해지고 있고 교수님들의 학문을 향한 열정이 결실을 맺어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교 57주년을 맞아 21세기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두 여성동문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나

란히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기념대 李吉女총장은 「오늘이 삼은 격려와 더 열심히 하라는 제책으로 여길 것이며 洪羅禧호암미술관장과 함께 나란히 선정 증서를 받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이제껏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洪羅禧호암미술관장은 수상소감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인 모교에서 이런 큰 상을 받음 뜻은 그동안 우리 나라 문화발전을 위해 미려이나마 보람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해준 것 같아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커 가는 데에 동문 모두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피력했다.

력에 따른 질병과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정밀건강진단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뒀임장은 「정확하고 부담 없는 검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생각」이며 「의대 병원들의 국내 진출에 앞서 고품격 건강관리 분야를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시간에 검사 받기 어려운 노인, 지방 거주자, 해외교포 및 편안하게 휴양하면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숙박 건강진단도 실시한다.

비용은 기본건강진단은 50만원, 숙박건강진단은 2~3백만원 정도.

鄭義雄총장 개교기념사 <요지>



무엇보다 먼저 오늘날의 서울대학교가 있기까지 무수하게 헌신해주시고 교직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리교사 합니다. 특히 급변하는 우리 대학을 빛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신 두 여성동문께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을 받게 되어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원대학교 총장이신 李吉女동문께서는 본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수많은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박애·봉사·예교」의 철학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 모성보호,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과 더불어 인재 양성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호암미술관장이신 洪羅禧동문께서는 본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신 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착박한 우리 문화계에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특히 국제문화 교류와 한국 미술의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결과 우리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다시 한 번 획기적인 자기혁신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을 지탱해온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전의 교육·행정적 도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

에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조직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우리 대학은 주로 양적 팽창을 통해 대학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낡은 접근방식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학사구조와 행정조직 모두를 새 시대에 알맞은 모습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우리 대학의 먼 앞날을 위해 기꺼이 참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만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모아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우리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충실해야 할 터이지만,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울대학교를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적극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의 입학과 학위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꿈꾸고 있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캠퍼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환경은 이제 단순한 쾌적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관악의 빼어난 자연환경에 걸맞은 환경 친화적 에코 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악산의 숲과 살개천들이 대화의 교정과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관악구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교 야구부

창단 27년만에 해외원정서 첫 승

모교 야구부가 지난 10월 3일 중국 베이징 톈타이 야구장에서 열린 베이징대와의 친선 경기에서 8 대 3으로 승리해 1976년 창단 후 1백90회의 경기만에 첫 승을 올리는 감격을 누렸다.

이날 선발 박진수 투수(체육교육과 3년)의 완투와 3타수 3안타를 올린 주정 용민(체육

교육과 3년)선수 등의 활약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 한편 모교 야구부는 야구 선수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 선수들로 구성된 타대학 야구부와의 경기에서 우승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모교 병원

강남에 종합 건강검진센터 개원

모교 병원(원장 朴義熙)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에 분원형태의 건강검진센터(원장 吳秉熙)를 개원했다.

전용면적 1천2백평 규모인 강남건강검진센터에는 24명의 전담교수 등 1백5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1 대 1 맞춤서비스」를 위해 하루에 받는 환자수를 1백50명 이하로 제한한다. 이 센터는 모든 검사를 한 층에서 끝낼 수 있도록 첨단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기본건강

진단에서부터 프리미엄 건강진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프로그램의 경우 성인병의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기본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암·대장질환·심장질환 등 연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중점적으로 검진하는 「헬스케어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기본 프로그램 외에 암·뇌·호흡기·심장 등 환자의 가족

林光洙회장 개교기념 특사 (요지)

해방 후 격동기에 탄생한 모교가 역사의 소용돌이와 부침 속에서 오로지 자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기본을 굳게 지켜왔음으로써 오늘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나라 최고의 대학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나날이 지적 인프라가 충실해져가는 한편 교수님들의 학문을 향한 열정이 결실을 맺어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지수가 98년 세계 대학 중 94위에서 2001년 40위로 부상한데 이어 지난해는 34위로 올라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모두 鄭雲龍총장님을 비롯하여 모교 교직원 여러분들의 모교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개교 57주년의 축전에 21세기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두 분의 여성동문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나란히 한 자리에서 칭송하며 축하드리게 된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이 곧 인술」이란 철학을 가지고 순수 창업한 가천 길재단을 이끄시는 경원대李吉女총장께서는 일생을 나뉘는 남을 그리고 사회를 위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으며 의료, 교육, 문화, 언론 분야에서 봉사의 맥을 잇고 확산시키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창회 부회장과 의과대학 동창회장으로서 정학사업의 확대와 동문 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남다른 업적을 남기시고 계십니다.

또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洪羅禧 호암미술관장님께서 기업메세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여 국내 각종 문화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삼성그룹의 미술문화사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셨으며 한일 문화교류에도 크게 기여하여 프랑스로 예술문화홍장을 수훈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洪羅禧동문의 특별한 배려로 국내 최초의 대학교 미술관인 「서울대학교 미술관」 건립이 시작되어 모교의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뜻을 함께 하고 있는 동문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에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전하의 존재들이 우리 모교 서울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실력으로 국가의 요직에 많은 우리 동문들이 없어서는 안될 동량지재로서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로 인해 시새움을 받기까지 합니다마는 지구촌 어디에 가나 동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

면면히 이어오는 모교의 정화정신이 우리를 한데 묶어 줍니다. 그러나 또한 그만큼 우리에게는 대의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윤리가 지켜져 있습니다.

자! 이제 조국 앞에, 민족 앞에 책임을 지는 서울대인들-용기와 희생을 갖고 서로 도우며 겸손하나 담담하게 앞을 향해 걸어갑시다.

27회 MBC 대학가요제
13개 팀 참가...모교서 열려

〈사진제공: 대학신문〉

지난 10월 4일 MBC 주최 제 27회 대학가요제가 3만여 명의 참가자 및 관객들이 모인 가운

덕대 수상자인 가수 신혜철과 채리필터, 장나라, 이수영, 마아, DJ DOC, 빅마마, 거미 등

데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탤런트 차태현씨와 가수 이효리씨가 사회를 본 이날 가요제에는 총 13개 팀이 참가했으며, 여덟 번째로 출전한 모교 「Fuze」팀이 퓨전 재즈와 펑크 사운드가 결합된 곡 「처음인 것처럼」을 불러 관객들의 열띤 응원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서경석(96년 人文大 주·방송인) 동문, 초대 가수인 이적(92년 社倉大入·본명 李東俊) 동문,

이 축하무대를 꾸몄다.

대상은 경북대 남천 듀엣 「슬레노이드」팀에게 돌아갔으며 (사)한국대중음악연구소 崔嘉準(59년 法大入·본명 崔成俊) 이사장이 시상을 했다. (享)

신입 교수에 연구비 지원

모교는 최근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전임교원 전원에게 연구장착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연구과제당 1천~1천5백만원의 연구비를 주고 있으며, 지급 총액은 10억원이다. 이전까지는 신입교원 중 선발을 통해 일부에게만 연구비를 지급해왔었다.

한편 모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 신입교원들에게 연구 과목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모교가 신입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교수의 연구능력이 점차 대학 경쟁력의 척도로 평가되는데 따른 것이다.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성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공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4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4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법과대학

법학동 로비 「유민홀」로 명명

법과대학(학장 安京煥)은 지난 10월 14일 법학동 1층 건물 로비를 「유민홀」로 명명했다.

최근 모교 洪羅禧(79년 社倉大入·보광 총관사장)가시회장이 모교 법대 발전기금으로 4억 원을 기부해 법대는 이 금액으로 건물 1층을 개·보수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단장한 1층 로비를 기성회

장 부전인 故 洪羅禧(40년 京城法專入·前중앙일보 회장)동문의 아호인 龍民을 따서 건물 로비의 이름을 지었다.

이는 故 洪羅禧동문이 한국 법조계에 미친 공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법대는 앞으로도 고인의 업적과 뜻을 후학들이 본받을 줄 할 계획이다.



동문기자의 취재수첩

하나로 어우러진 남북 통일농구대회

2003년 10월 1일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시간이 벌어졌다. 남측의 방송 장비를 실은 차량 행렬이 고려에 이르러 물고 판문점을 지나 반세기 동안 남치 못했던 북측 군사시설권을 넘고 있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73km, 개성에서 다시 1백60km를 달려 평양에 입성했다. 평양시내는 깨끗했지만 렌즈가 탁했다. 파인트가 귀해 고층 건물들은 온통 회색시멘트 색깔이었고 2백만 인구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거리는 한산했다.

SBS는 「유경 정주영체육관」 완공 기념 행사로 남북 통일음악회와 통일농구대회를 생중계하고 체육관 앞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를 라이브로 연결, 뉴스 시간에 평양 소식을 생생하게 보도하기 위해 2백50명에 달하는 제작진과 취재진들 평양에 파견했다.

필자는 스포츠 기자로서 통일농구대회 뿐 아니라 평양의 체육 시설이나 실태, 평양시민들의 일상 생활 등을 다량하게 취재해 보도하겠다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지만 평양 도착 직후 이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본 행사 이외의 취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바 없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타고 간 5대의 취재차들은 호텔에 발이 묶어 버렸다. 북측 요원들은 남북 취재진에 대해 체육관 이외의 장소와

주변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켰다. 그나마 체육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 취재에 대해서도 항상 북측 요원들과 동행해야 했고 취재한 화면과 기사는 일일이 북측 요원들의 검열을 거쳐야 했다. 평양 도착 후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화면에 담은 것이 없었다. 당장 이를 후부터 취재물을 송출해야 하는데... 마음이 초조해졌다.

평양 도착 나흘째, 드디어 상황이 발상했다. 북한의 취주악단과 무용단, 음

“
김선생, 정말
곤질기구만... 그럼
딱 3분만 촬영하거요
”

원단 1천여 명이 본 행사 연습을 위해 체육관 앞마당에 집결한 것이다. 그림이 좋았다. 첫 번째 취재거리가 생긴 것이다. 동력 카메라 기사와 신속하게 한 발을 이륙 무전 마이크를 들고 정신없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녔다. 웅원단과 무용단, 안내요원 등 가릴 것 없이 달치는 대로 인터뷰를 시도했고 그들의 준비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 지도요원이 다가와 사나운 태도로 취재를 중지시켰다. 안

내요원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재 테이프의 대부분을 삭제 당했고 이후 분위기가 경직되며 취재가 더욱 어려워졌다.

평양 도착 다섯째, 드디어 평양에서 첫 방송이 나가는 날이다. 바로 코 앞 보조경기장에서 북한의 최고 농구 원로 리명훈을 비롯해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북한 지도요원들은 이 모습 역시 화면에 담지 못하게 했다. 당장 오늘부터 평양 생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취재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예전처럼 생수 30통을 사들고 와 이것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더라도 하게 해 달라고 거의 애원하느라 했다. 「김선생, 정말 곤질기구만... 그럼 딱 3분만 촬영하거요」 지도요원이 한발 물러섰다.

1차 관문을 통과해 체육관으로 들어섰는데, 이번엔 북한 선수단 감독으로부터 태블이 들어왔다. 오늘 촬영을 미리 종료 받지 못해 선수들이 경기복도 안 갖추고 나왔으니 찍지 말라는 것이었다. 체육관 밖으로 쫓겨난 취재팀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마치고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만이라도 볼까 적기 위해 반대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베스에 올라타는 선수들의 뒷모습을 간신히 화면에 담았다.

아침까지 평양의 첫 방송이 나갔고 다음날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면서 북측



金映成(90년 人文大卒)
SBS 스포츠취재부 기자

요원들의 태도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체육관 개관을 기념하는 남북 합동 음악회, 남과 북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객석에서도 서로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됐다. 마지막날 남북 통일 농구도 우리 민족이 하나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측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지던 관중석에서는 탄식과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북측 선수단의 멋진 플레이에는 1천여 명의 남측 참관단이 큰 환호로 응답했다. 경기가 끝난 뒤 남측 참관단과 평양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코트 위로 뚝뚝나와 춤을 추며 음악을 춤을 추며 하나로 어우러졌다.

뉴스제작과 송출을 마치고 체육관 밖으로 나오니 평양의 가을 밤하늘은 남북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축파가 쏘아 올려졌다. 그리고 그 불꽃놀이들 배경으로 8시 뉴스 평양 현지 생방송이 진행됐다. 며칠동안 취재하면서 겪었던 가슴앓이가 서는 듯 두 손가락이 저렸다. 역사의 현장에 서서 그 순간을 지켜보는 필자는 너무나 행복했다.



李垚宇(00년 自然大卒)
한국일보 사회1부 기자

「보시다시피, 하는 일이 없는데 무슨 얘기 거리가 있었어요」

한국일보 사회부 사건기자의 일원으로 서울대 취재를 담당한지 이제 겨우 3달째 접어들다. 학교 행정을 맡은 대학본부의 각 부서 보직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내 주요 취재원이다. 위와 같은 얘기가 몇몇 취재원과의 일상 인사로 된지 제법 됐다.

「하는 일이 없다」는 그들의 말을 어찌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중요한 일을 추진해도 애써 태연한 것이 취재원들의 생리라면 생리다. 그러나 「하는 일이 없다」는 농담이 마치 진담처럼 여겨지는 것은 현재 취재가 처한 여러 상황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중도 개혁성향의鄭鍾燮총장 취임 후 서울대는 「세계 초인류 대학 성장」이라는 주요 개혁 추진과 함께 각종 제도 개혁사업에 분주하다. 지역권 형선발제, 학부대학제 등 새로운 위치·

“서울대가 달라졌다”는 주장 동의할까

회사 제도는 이르면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鄭鍾燮가 취임 1주년을 넘어선 지금 「서울대가 달라졌다」, 「서울대 위기관이 가파랐다」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교직원과 학내 교수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鄭鍾燮가 추진중인 거시적 개혁과 달리 실무 차원의 미시적 개혁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동이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된 이미지만인 서울대 교직원들의 일 처리는 더욱 더 나다」고 표현한다. 서울대 관계자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한 보직 교수는 「서울대의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매사에 신중을 신중을 거듭한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괴리는鄭鍾燮가 취임 당시 주창했던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아직도 주요 정책 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鄭鍾燮가 취임 후 강력히 추진해온 학부대학제가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혀를 찼다. 학내 여론 수렴과정이 여전히 미미해 정작 총장이 추진하는 일부 핵심 정책들은 총장의 말만이 수 차례 그대로 언론에 반박 보도된 뒤에야 시행에 옮겨지는 「선 홍보 후 기획」의 과

정을 거치고 있다. 한때鄭鍾燮를 두고 불거졌던 포퓰리즘 논쟁도 결국 「한국 교육제도 개선의 핵심인 서울대 개혁작업 만큼은 여론에 아랑곳없이 원칙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鄭鍾燮식 개혁이라는 것이 서울대의 관료적 질서를 최대한 존중하며 추진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감싸야 할 부분

외부 여건보다

내부에 눈 돌려야

서울대 개혁은 이루어진다

이다. 학내 기존 질서 및 기득권층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니 일부가 답보상태에 머무는 사례들도 종종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영전문대학원(MBA) 설립과 관련한 학교측과 경영대학의 마찰은 한가지 예가 될 것이다. 학교측은 자체 연구팀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서울대 MBA 설립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고 경영학부의 정합성감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지만 경영대학은 「MBA와 관련해 단 한 명의 학부 정원은 줄일 수 없다」며 내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2005년 조기시행을 목표로 했던 MBA설립 여부도 현재로서는 극히 불투명해진 상태다.

金政秀 前대대 교수의 복직 문제와 관련한 학내 논란도 서울대의 자체 개혁의지를 참치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5년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金 前교수 사태는 학문적 양심에 따른 개인 행동이 서울대의 관료적 질서와 정면 충돌한 전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재 별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되풀이하고 있는 서울대별원 내 간호사 폭행 및 성희롱 파문으로 병원 보호 해임됐던 의대 1교 교수가 최근 경직 허가의 구제 조치를 받은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鄭鍾燮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7주년 개교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중대한 전환점에 선 서울대는 학사구조, 행정조직 모두를 바꾸는 획기적 기기가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천명했다. 과연 현실은 어떤가. 외부 곳곳에서 서울대 독점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학교 관계자들은 때때로 정말 일이 없을 때가 있다. 외부 여건보다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을 먼저 눈을 돌릴 때 서울대의 개혁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趙東榮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4형제 동문, 다양한 분야서 각자의 개성 발휘

“남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을 때 행복한 것”

모교 관악캠퍼스, 연건캠퍼스, 이제는 옛 추억으로 남게 된 수원캠퍼스. 天馬肥의 계절 가을이 되면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하나 둘씩 모교를 방문해 단과대학, 학과, 동기와 별로 흠뻑망대이 행사를 개최한다. ■늦지 않고 항상 진행되는 순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교를 구석구석 둘러보며 가족들에게 자랑삼아 자신의 학창 시절을 얘기하는 시간이다.

趙東榮(70년工大卒·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동문이 모교를 방문할 때면 남다른 감회에 젖어든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모교 공룡동 공대 재학시절 4년 동안 생활했던 기숙사가 1980년 모교 후문 낙성대 부근으로 신축 이전하여 설계를 맡았으며, 대학원 기숙사,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역시 그의 손패가 묻은 건물들이다.

그리고 모교에는 장인 高柄翹(47년文理大卒)동문이 14대 총장을 역임했고 큰 형 趙東一(62년文理大卒)동문이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어 모교와의 인연이 각별하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해온 부친의 영향으로 작은 형 趙東昊(71년農大卒·前영전시 부시장)동문, 남동생 趙東鎭(77년醫大卒)동문을 비롯해 네 명의 형제가 모두 모교를 졸업했으며, 백부 故 趙鳳海(23년醫大卒)동문, 외숙부 故 朴勝杰(47년文理大卒)동문, 처형 高惠玲(68년文理大卒·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동문과 중서 張培權(65년商大卒·배성기연설인 대표)동문, 매형 金斗彙(62년文理大卒·美사업가)동문, 趙東榮동문의 장남 趙祥烈(99년工大卒)동문과 처남 趙亨烈(99년經發大入)동문이 모두 서울대 가족을 이루고 있다.

4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력을 지닌



앞줄 좌로부터 趙祥烈·趙東一동문, 뒷줄 좌로부터 趙亨烈동문, 한 명 건너 趙東鎭·趙東榮·趙東昊동문.

동문은 다름 아닌 趙東一동문. 모교 불어 불문학과와 국어국문학과를 모두 졸업했기 때문. 처음엔 불문학에 매력을 느껴 석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한국학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 이후 국문학계에서 저명한 인사가 됐다. 형제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전일적인 성격을 가진 趙東昊동문은 농대에 들어갔으나 재학중 군복무를 마치고 행정고시에 합격, 오랜 세월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봉사했다. 두뇌가 가장 우수했던 趙東鎭동문은 가족들의 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부친의 뜻에 따라 의대를 선택하여 현재 부산에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있다.

한편 미술에 뛰어난 취미와 소질을 지녔던 趙東榮동문은 한때 미술대학 진학을 꿈꾸기도 했으나 고교시절 어느 월간지에 「건축가 11인」이라는 회보 기사를 접하면서 건축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대학 졸업 후 초지일관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 77년 개인설계사무실을 개소하여 26년간 역량을 쏟아냈다.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 그는 「저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모두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려는, 부른 꿈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구체화시키면서 활기차고, 외유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 저 역시 삶이 외유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지요」라고 대답한다.

자세히 보면 형제 중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문이 한 사람도 없어 한자리에 모이면 재미난 이야기거리도 없을 터. 하지만 이들이 지금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형·아우에 대해 지켜야 할 도리와 서로간 존중해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들 모두는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趙東榮동문의 장남 趙祥烈동문은 부친과 같은 공학도지만, 분야가 조금 다른 토목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모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군복무를 마친 후 토목구조 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재 해운대학

을 준비중이다. 이와는 반대로 다분히 문과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 처남 趙亨烈동문은 고교시절 EBS 장하퀴즈 기자석을 하여 2년간 외부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경영대학에 진학하여 3학년 휴학 후 산업기능요원으로 벤처회사에서 대제 군복무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훈, 인생관, 철학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해하기 쉬운 말보다는 조금은 어렵고, 격식을 차린 한 자성어나 글귀를 읊는다. 하지만 趙東榮동문의 이 간담하면서도 명쾌한 비유 속엔 누구나 공감하는 아름다운 진리가 담겨 있다.

「부친께서 항상 배달된 우유를 앉아서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직접 배달해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말씀을 형제들에게 강조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할 뿐, 별다른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表)

건강을 지킵시다

남성 갱년기 주증상은 성욕 감퇴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감소한다. 다만 여성처럼 폐경기가 되면서 갑자기 호르몬 분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런 이유로 여성과는 달리 갱년기 증상이 살면서 나타나서 완전히 진행되고 그나마 모든 남성에게 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으로 알아왔지만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남성갱년기 증상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 무드의 변화이다. 쉽게 피곤해지고 별 것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고 우울해진다. 그리고 기억력이 전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지는 데, 특히 오래 전의 것은 잘 기억을 하지만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피부가 탈모되면서 탄력을 잃게 되고 내장의 지방질이 증가하면서 특징적으로 아랫배가 튀어나온다. 근육도 약해지고 여성에서처럼 골 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뚜렷한 증상은 성욕이 감소하면서 발기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증상이 있으면서 실제로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했을 때에 보충요법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대개 하루 중 오전에 호르몬의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오전 중에 채혈을 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



安大相(77년 醫大卒)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 과장

중인 치료법은 경구약물, 3주마다 근육주사를 하는 것과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 제제와 피부에 바르는 겔 제제 등이 있다. 치료의 목표는 성기능의 회복과 성욕 및 행복감을 되찾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력의 유지와 골 밀도의 증가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주 심한 경우이나 전립선암이 있을 때는 호르몬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남성호르몬이 비대증이나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방차 비대나 암이 없던 환자에게 호르몬 치료를 했다고 해서 새로 병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의 스크린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의 지시 아래서 선택된 환자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지만 한다면 분명히 남성호르몬 보충요법은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연락처 : 3010-3732)

나의 건강법

우리 조상들의 슬기 ... 국선도 단전호흡

金京熙(61년 文理大卒)지식산업사 사장·사회과동향회장



필자는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폐결핵을 앓았고, 대학 때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더니 20대 중반부터 7년 동안 십이지장궤양을 앓아 감치도 먹을 수 없었다. 30대 초반 한 때 간염양 결립증에 시달렸고 40대 중반에는 당뇨를 앓기 시작했다.

당뇨는 남성을 잃게 해 이른바 임포에 빠졌다. 양약과 한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실패한 것이 없었다. 1년 남짓 고생하다가 국선도 단전호흡을 시작한 지 꼭 두세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그 날로 매끼 식후에 거의 한 주먹씩 먹던 약을 모두 버리고 지금은 비타민제 밖에는 먹지 않는다. 대신 나는 회사에 밤 하나를 차워

도장을 마련해 아침마다 가까운 이웃들과 단전호흡을 한 뒤 일과를 시작한다.

국선도 단전호흡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해오던 독특한 양생법이다. 아마 고구려·백제·신라 이전부터 터득해서 이어져오다가 신라 진흥왕 때는 청소년의 필수 심신수양 단련법으로 공인됐다가 고려도와 함께 국선도는 화랑도의 별칭이기도 하다.

단전호흡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바깥에 밀려난 몸과 마음을 통일적으로 단련하는 건강법이다. 그러기에 집중력 훈련을 통한 지구력 훈련이다. 나는 40대 후반에 시작한 지 두 달쯤 지나 학과에 빠진 적이 있다. 4층 창 너머 콘크리트 보도 위에 바늘기둥이 모이를 쪼아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뛰어내리면 새처럼 사뿐히 내려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이리기에 화랑 관장이 10대 소년의 몸으로 백제 계백 장군에게 두 번이나 단기 필마로 도전할 수 있는 임전두희의 용기가 가능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고려·조선시대에도 문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국선도 단전호흡을 생활화하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임진왜란 때 한 말에 올라 탄 유생들이 나라의 위기는 의병장으로 앞장서서 농민군의 지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를 사는 사람 누구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의 밤백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지식인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라 안락의 선후배, 동문들에게 감히 권한다. 많은 건강법이 있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는 국선도 단전호흡에 한번 입문해보시라고.

세계의 동문

LA골프대학 盧淳喆학장



“국내에 골프대학 만들고 싶어요”

목자이신 부친(모교 廣熙惠명예교수)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죠.

안식년을 맞아 고국에 돌아와 지난 학기에는 모교 학생들에게 골프강의를 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전체 수강과목 가운데 조기 마감된 강의 중 하나였고, 강의록 들은 한 학생은 “필드에 나가도 될 것 같다”며 만족도 역시 높았다고. 미국에서 스윙 동작 분석기를 손수 가져와 학생 한명 한명에게 이메일로 동작사진과 교정해야 할 곳을 알려주기도 했다. 10년 넘게 미국 땅에서 쫓은 노후우를 마음껏 발휘한 셈이다.

“백여 명이 수강을 했는데, 반대, 공대생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왜 배우라고 했었는지 재미있을 것 같고 노후대비 차원에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체육과목은 쉽게 학점을 받기 위해 수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기동안 높은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盧학장은 요즘 LA골프대학을 전 세계로 프랜차이즈화 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그 첫 단계로 중국 북경 외국인특별구역에 LA골프대학 분교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쪽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캐나다, 일본에도 사업을 확장해나갈 생각입니다. 최종 목표는 국내에 제대로 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지요. 많은 골프교육기관이 골프 치는 법에 치중하고 있는데, 골프장 관리, 골프클럽 제조기술, 골프 마케팅, 골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골프종합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골프에 미쳐 결혼도 40세를 넘어 했다는 盧학장은 지난 4월에야 아내가 왔다. 11월 중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는 “헤어져 있는 동안 아내님이 얼마나 왔는지 너무 보고싶다”며 멧먹은 미소를 지었다. (南)

미국 스포츠계에서 유색인종이 팀의 수장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격시과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골프는 유색인종 불모지이다. 그러나 금기를 깬 사람이 있다. LA골프대학 盧淳喆(84년 師大卒)학장이 그 주인공.

盧학장은 동양인 최초로 미국대학(LA Harbor College) 골프팀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지난 2001년 9월부터는 LA골프대학(www.lagolfcollege.com)의 학장을 맡게 됐다. LA골프대학은 미국정부의 공식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2년제 대학으로 샌디에이고 골프아카데미, PGCC 등 유명 골프전문 교육기관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대학이다.

盧학장이 수많은 운동중 골프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체육교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특히 운동역학에 관심이 많았더니 동작이 다양한 골프와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체육교

Noblesse Oblige

지난 3월 모교 법과대학 특별전향에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나란히 입학했다. 반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 늦깎이로 입학했지만 여느 새내기처럼 부푼 가슴을 안고 학학열을 불태우고 있는 손위용(50세)씨와 김용광(41세)씨가 그 주인공이다. 고교시절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쳐 의족만으로 는 생활한 커피스를 걷어다니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던 손위용씨와 20여 년 전 망막색소변성으로 두 시력유 거의 다 잃어 책을 제대로 읽기 힘들었던 김용광씨는 최근 모교로부터 작지만 사람이 가득한 선물을 받았다.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위용씨(사진 左)는 모교로부터 전

동활책을 지원 받았으며, 금기가 지난 8월부터 법과대학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시작, 착공 2개월

반 만에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김용광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모금운동을 펼쳐 최근 전자확대기를 선물 받았다. 이러한 작은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냐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다른

아닌 모교 법대 학생으로 있는 安京煥(70년 法大卒)동문(사진 右)이다.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한 단과대학의 행장을 비롯한 모든 것을 관할해야 하는 학장까지 겸하고 있는 安京煥동문. 모교 사람을 섬전하는 내용의 기사가 올해 들어 종종 나왔을 뿐이지 사실 安동문의 사회봉사

활동은 20여 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소리 없이, 꾸준히 드러나지 않게

해오던 일이다.

“부친께서 항상 재물과 사랑은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했어.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새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는 安동문은 변호사, 사업가, 직장인 등 안 해본 일이 없지 만 그 중 법률구조 전문가로서 명활약하며 아동학대, 청소년 문제, 여성문제 등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찾아주는 일에 헌신해왔다. 또

참여연대,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아름다운 재단, 청소년 법률지원단 등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는

“남에게 빚을 줄 수 있을

때 행복

한 겁니다. 자꾸만 가지

려 하면 나 중에

그만큼 얻지 못했을 때 인생이 불행해져요. 배부는 것은 곧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문득 安동문이 어느 일간지에서 남긴 글이 기억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약자를 위해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 나눔은 왕상의 일, 베풀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남을 도울 형편이 되기를 기다리다간 생명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만 열려 있으면 널리 베풀 수 있다”

(表)



모교 법과대학 安京煥학장

장애 학생에게 휠체어·전자확대기 지원
20여 년간 법률구조 전문가로 “명활약”

이런 말 하나

③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전경.

금융감독위원회에 근무한다고 하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이 있다. 『거기 구조조정하는 곳이지요?』, 『금융감독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가 그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4월 출범했으니 이제 겨우 5년여의 역사를 지닌 기관이다.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해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탄생 초기부터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금융감독」, 즉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정상시의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 타 금융기관이나 금융산업 전체로 부실이 파급되지 않게 하는 것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임무이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 뿐 아니라 기업들의 부실이 심각했던 IMF 경제위기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우리 경제 구조조정의 선봉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과 역사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주어 설명하고, 이어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출범은 1997년 1월 구성된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정호(50년 文理大入·금융그룹 명예회장)의 논의로부터 시작됐다. 금융개혁위원회는 많은 토론을 거쳐 우리 금융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개혁안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방안」, 그리고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감독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혁안은 금융 결합화의 확대, 금융시장간의 연계성 강화 등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당시 우리의 금융감독체계가 복잡하고, 금융감독기관 유기적인 협조도 견여와 종합적인 금융감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개혁안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부문의 주요 내용은 그 이후 논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돼, 1997년 12월 31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1998년 4월 정부조직을 개편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고, 1999년 1월에는 한국은행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발족했다.

『구조개혁 기획단』서 출범

한편 1998년 5월 금융·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됐고, 금융감독위원장인 구조개혁기획단의 단장을 겸임하게 됐으며, 이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증가하고 구조조정이 차츰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구조개혁기획단의 업무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정규조직에 차츰 옮겨 왔다. 이렇게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IMF 경제위기라는 격랑의 한가운데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1997년 말 우리 경제는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원화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급속히 이탈했으며, 국내금융기관의 자금결제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부문의 자금결색으로 수출과 산업활동도 위축되는 등 실물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외신인도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돼 국가부도사태(moratorium)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 신용도 회복에 힘써

이러한 심층에서 당시 정부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단행, 1998년 6월 5개 부실은행이 퇴출되면서 「은행불사」의 신화가 깨지고 금융권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그 후 금융기관의 퇴출, 합병, 경영정상화라는 용어

들이 뉴스에 빈번히 등장하게 됐다. 1997년 말 33개에 달하던 은행은 2003년 9월 말 현재 18개로 감소했고, 금융기관 전체로는 1997년 말 2천1백1개에서 2003년 9월

말 현재 1천3백73개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를 가늠해 한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함께 당시 IMF 경제위기 극복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주목되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됐다. 주요 대기업 그룹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노력이 계속됐고, 국내 굴지의 대우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등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됐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또한 크게 요동쳤고 불안한 양상이 거듭됐다. 이러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러한 과정중 업무로 인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일요일에도 집에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금융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실행이 됐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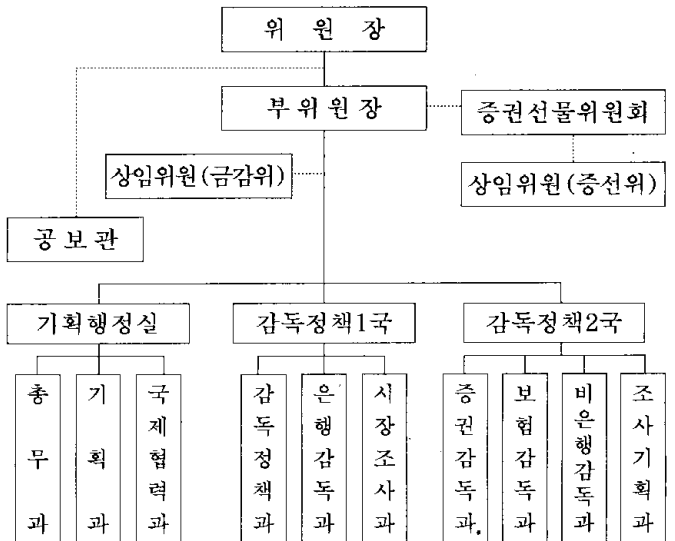


금융감독위원회 원훈석.

5개 은행 퇴출도 비로 하부전인 일요일 밤에 소리 없이 준비됐다고 한다.

IMF 경제위기를 넘겨준 구조조정의 추진을 통해 극복해 가면서 우리 경제는 차츰 회복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과거의 부실을 털어 내어 경제위기 당시 10%에 이르던 부실채권비율이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인 2~3%로 낮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1997년 이래 증권직자를 면치 못하던 은행의 수익성도 2001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되는 등 우리 금융기관의 생산성도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회복하면서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추락한 국가신용등급도 작년에는 다시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게 됐다.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인내



로 극복함에 따라 이제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라는 암울한 터널을 완전히 벗어난 듯 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원들은 스스로 IMF 경제위기 극복의 작은 다짐들이 됐다고 자부한다 한다.

금융 리스크 관리가 관건

「금융회법」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금융시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전체로 확산되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이란 사전에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감시·감독,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리스크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라 할 수 있다. 즉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절한 규율(금융감독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조사가능을 통해 이를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론 그 틀이 마무리됐지만, 금융위기의 재발방지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감독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위기가 상당부분 극복된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 금융시장의 안정기조 유지 등 많은 주요 금융현안과 관련해 여전히 여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은행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율성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은행의 민영화 추진은 당면 과제중의 하나이다. 투신사 등 제2금융권도 여전히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도 매각·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변 상반기 금융시장의 최대의 화두는 카드제 관련 금융시장 불안이었다. 당시 신용카드사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로 인해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자립적인 협조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함으

로써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셋째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여신전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기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제반 대책 등도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이다.

금융감독이란 정태적으로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는 단순업무가 아니라, 금융여건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변화무쌍한 금융특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실·2국·10과로 구성

위원회는 다 정무부처와 달리 설치 근거를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으며 9인의 회제와 사무처 성격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법 제4조 및 제15조) 금융감독위원회의 9인은 금융감독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차관보급)과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금융전문가·법률전문가·경제계 대표인 비정임위원 3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신용시장의 불공정 조사 등을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보조·보좌조직으로 증권보좌실, 기획행정실,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2국이 있다. (조직도 참조)

기획행정실은 임원부처의 기획관리실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주요업무계획 등을 담당하는 기획과, 인사·조직·예산을 담당하는 총무과, 국제협력과 의 사범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로 구성돼 있다. 감독정책1국은 감독정책과, 은행감독과, 저축감독과로 구성돼 있고 감독정책2국은 증권감독과, 보험감독과, 비은행감독과, 조식감독과로 이루어져 있다.

은행감독과, 증권감독과, 보험감독과, 비은행감독과는 그 범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은행, 증권·부신, 보험, 비은행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신용협동조합 등)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곳이다. 감독정책과는 감독정책의 기획, 금융유지조사 감독 및 금융시장안정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시장조사와는 기업자살심판점검, 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여신) 감독,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조사기획과는 증권·신용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금감위의 집행기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업무특성상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 위원회는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업무 수행한다. 일반인으로서서는 양 기관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금융제도, 금융시스템, 금융관련 법률 등을 다룬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직접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많은 부분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때문에 양 기관은 주요 정책에 대해 항상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도 금융감독이나 금융감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과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하는 「금융정책회의」를 구성해 각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조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인 기구 외에도 실무자들간에는 유기적인 회의를 통해 기관간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의 서무에서 언급했듯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흔히 듣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금융감독위원과의 관계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조직인 반면, 금융감독원은 실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직상으로는 상하인하 관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비록 상하인하 기관이라는 하지만 양 기관은 항상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원의 60%가 동문

금융감독위원회에는 41명의 동문들이 있다. 전체 정원이 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의 반 이상이 우리 동문들로 구성되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李晶鑑(69년 廬大卒)위원장은 행정고시 8회로서 재무부(현재재정부)에서 금융정책과장, 이재국장, 재무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금융정책실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전무, 금융감독원 부

장, 재정부 차관 등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및 금융정책에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합리적 리더십,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선후배와 주변사람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고 있다.

금년 초 금융감독원 노조에서 가장 비판적인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李晶鑑동문을 뽑은 것도 이 같은 평가가 뒷받침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취임 후 금년 상반기 우리 경제를 치유했던 카드제 관련 금융시장 불안을 감당하게 해결했고, SK글로벌 구조조정으로 시정위원회에 의한 추진력을 정립하면서 원활히 마무리하는 등 금융감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李東傑(77년 社論大卒)부위원장은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경제비서관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협심에 대해 이해를 깊히하고 있다. 연초에는 대통령 임수위에 참여하면서 새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 방향 설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부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주요한 금융개혁정책을 착실히 행하고 있다. 또한 해박한 업무지식 외에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동문 현황〉

이름	졸업연도	직책
李晶鑑	69년	상대 경제학 위원장
李東傑	77년	사회대 경제학 부위원장
梁天植	73년	문리대 사회사업학 금감위 상임위원
李佑植	71년	법학 증권위 상임위원
李斗野	78년	사회대 사회사업학 금보관
金鐘泰	78년	경명대 경영학 감독정책1국장
鄭煥燦	77년	사범대 사회교육 총무과장
李虎煥	88년	사회대 경제학 국제협력과장
金南勲	81년	사회대 경제학 감독정책과장
俞在顯	83년	사회대 무역학 은행감독과장
李丙來	85년	사회대 무역학 시장조사과장
李海理	86년	행정대학원 행정학 모협감독과장
高承範	85년	사회대 경제학 비은행감독과장
徐太燾	87년	행정대학원 행정학 고용유직
李明勳	91년	사회대 경제학 기획과 서기관
金根泰	88년	사회대 경제학 감독정책과 서기관
金廷珪	91년	사회대 경제학 증권감독과 서기관
安振源	84년	사회대 무역학 유학유직
李明勳	88년	법대 사법학 인건근로추진
鄭奎泰	89년	사회대 경제학 교육과장
金奎堂	92년	경명대 경영학 위원장실 사무관
陳榮彩	97년	자연대 물리학 기획과 사무관
崔名秀	88년	경명대 경영학 국제협력과 사무관
李珍秀	98년	행정대학원 행정학 국제협력과 사무관
南秉昊	89년	법대 공법학 감독정책과 사무관
邊曉錄	91년	사회대 경제학 감독정책과 사무관
李東勲	96년	사회대 경제학 감독정책과 사무관
金泓武	94년	경명대 경영학 은행감독과 사무관
孫潤宇	93년	사회대 경제학 시장조사과 사무관
裴俊洙	89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증권감독과 사무관
朴顯洙	93년	경명대 경영학 증권감독과 사무관
李應錫	94년	경명대 경영학 모협감독과 사무관
尹暢浩	91년	사회대 외교학 비은행감독과 사무관
李在弘	97년	농생대 농경제학 비은행감독과 사무관
吳相世	97년	인문대 철학 비은행감독과 사무관
崔有彬	90년	경명대 경영학 유학유직
崔俊宇	91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유학유직
李洙洙	9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교육과장
金寶京	97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교육과장

※현황이 파악된 동문 일부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등정

수상

▲**柳達永**(36년) 水原農產·성전문화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28일 흰트호텔에서 열린 서울YMCA 창립 1백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음.

▲**李廷煥**(57년) 工大卒·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가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건설부문)을 받음.

▲**李世中**(57년) 法大卒·변호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10월 28일 흰트호텔에서 열린 서울YMCA 창립 1백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음.

▲**黃迪仁**(57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명예교수=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보라 문화훈장을 받음.

▲**李吉女**(57년) 醫大卒·기초전문화재단 이사장·외대 동창회장=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매세나 단체 및 지역 문화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받음.

▲**黃美善**(59년) 法大卒·연세대 초빙교수=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받음.

▲**尹承重**(60년) 工大卒·원도시 건축 대표=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옥관 문화훈장을 받음.

▲**南魯鉉**(60년) 文理大卒·단국대 명예교수= 지난 10월 9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된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학술부분)을 받음.

▲**鄭世煜**(60년) 法大卒·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가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인문사회와

학부문)을 받음.

▲**劉漢玉**(61년) 家政大卒·한국공중보식연구원장·생화학대대 동창회장= 지난 10월 23일 제7회 한복의 날을 맞아 한복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복사랑협의회로부터 황금글로수상을 받음.

▲**金炳賢**(61년) 文理大卒·문화과 지성사 상임고문·인하대 초빙교수=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보라 문화훈장을 받음.

▲**金世遠**(61년) 法大卒·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10월 10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제22회 다산경제학상을 받음.

▲**李達祥**(63년) 美大卒·모교 음악학과 명예교수=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받음.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가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기초과학부문)을 받음.

▲**韓明熙**(64년) 音大卒·前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10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가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음악학부문)을 받음.

▲**權宰彬**(65년) 文理大卒·중앙일보 편집인= 지난 10월 10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제15회 중앙인문문화상(신문부문)을 받음.

▲**姜奉**(63년) 音大·줄리아드 음대 교수=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보라 문화훈장을 받음.

▲**朴紀正**(68년) 文理大卒·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3일 전북 임실 국민관광지 사선대에서 전북 소총·사선부속 소총·사선문화재단 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소총·사선문화상을 받음.

▲**金春玉**(68년) 美大卒·한국전립미술협회 이사장= 지난 10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은관 문화훈장을 받음.

월 20일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옥관 문화훈장을 받음.

▲**辛在哲**(70년) 工大卒·한국IBM 사장= 지난 11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뉴미디어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정보통신인'상을 받음.

▲**李一恒**(70년) 工大卒·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장= 지난 10월 9일 국립중앙극장에서 개최된 한글날 기념식에서 세종문화상(과학기술부분)을 받음.

▲**李統熙**(70년) 文理大卒·MBC 사장= 지난 10월 10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제15회 중앙인문문화상을 받음.

▲**李聖堂**(70년) 美大卒·만화작가·중앙대 감사= 최근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2003년도 크라코프 국제만화트리엔날레에서 동관화 '부유하는 삶'으로 밀로프스카 총독상을 받음. 한편 지난 10월 21~31일 강남의 갤러리 인데코에서 이번 수상작을 포함한 10여 작품으로 열 번째 개인전을 개최함.

▲**金鍾勳**(73년) 工大卒·한미파슨스 대표= 지난 10월 8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엘테크인뢰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정한 '한정·리버티 출판한 일터상'을 받음.

▲**朴五錫**(76년) 工大卒·KAIST 교수= 지난 10월 24일 한양대 백남학정서관에서 한국화학공학회로부터 올해의 학술상을 받음.

▲**盧政賢**(76년) 經貿大卒·현대상선 사장= 지난 10월 13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토머스 허버드 대사로부터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상무부 공로상을 받음.

▲**朴庚圭**(78년) 大學院卒·서강대 교수= 지난 10월 10일 단국대에서 열린 한독경상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2003 BMW코리아 학술상'을 받음.

▲**朴成勳**(82년) 經貿大卒·고려대 교수= 지난 10월 10일 단국대에서 열린 한독경상학회 국제심포지엄에서 '2003 BMW코리아 학술상'을 받음.

▲**趙克堉**(87년) 醫大卒·모교 정형외과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Dr. Stryker's' 상을 받음.

▲**전병철**(99년) 工大卒·모교 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지난 10월 7일 미국 전자전기공학회(IEEE)에서 주관한 제24회 '국제 전기적 스트레스와 정전기 발전: 연례 학술회의에서 최우수 학생 논문상을 받음.

▲**蔡洙三**(39기) AMP·대한애인신보 사장= 지난 10월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성언회(성균관대 출신 언론인모임) 정기총회에서 '올해를 빛낸 성균관언론인'상을 받음.

▲**朴成得**(20기) ACAD·전자신문 사장= 지난 10월 2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성언회(성균관대 출신 언론인모임) 정기총회에서 '올해를 빛낸 성균관언론인'상을 받음.

▲**申東完**(54년) 農大卒·前충남대 교수= 최근 사단법인 농업사회발전연구원에 취임함.

▲**李錫正**(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 최근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과학발전협의회 회장에 선출됨.

▲**張永善**(59년) 工大卒·前대한건설협회 회장= 지난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건설문화연구원에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趙準熙**(60년) 法大卒·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한 기구인 기창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됨.

▲**洪斗杓**(61년) 文理大卒·前KBS 사장= 지난 9월 29일 출범한 로포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孔魯明**(61년) 法大卒·前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10월 1일 언론 아시아인사이드 연 구기관인 아시아네트워킹(AAN) 회장에 선임됨.

▲**金義在**(62년) 法大卒·前대아건설 부회장은 지난 10월 20일 경남기업 대표이사 부회장에 취임함.

▲**鮮于仲略**(63년) 工大卒·명지대 총장= 지난 10월 14일 전·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의회 제4대 회장에 선출됨.

▲**李樞均**(64년) 法大卒·前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안전경제자유구역청 초대 청장에 취임함.

▲**田允喆**(65년) 法大卒·前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주대 석좌교수= 지난 10월 10일 감사원장에 내정됨.

▲**金秉學**(66년) 法大卒·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지난 10월 8일 정부부처자문위원(차관급)에 위촉됨.

▲**李基一**(67년) 工大卒·前두들 대표= 지난 10월 1일 한국전기조사 사장에 선임됨.

▲**李錫珠**(67년) 師大卒·한양대 교수= 최근 국민대 국제관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인유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李伯悅**(67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 지난 10월 1일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장에 선임됨.

▲**李錫采**(68년) 商大卒·前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10월 6일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에 위촉됨.

▲**朴明珍**(69년) 文理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본보 논설위원= 지난 10월 11일 모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취임함.

▲**林來生**(69년) 文理大卒·前산업자원부 차관= 지난 19일 한서대 산학협력단장 겸 국제통상학과 대우교수로 임명됨.

▲**金振賢**(69년) 法大卒·前소청심사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 한국행정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함.

▲**南勝義**(70년) 工大卒·홍익대 교수= 지난 9월 29일 열린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회의에서 홍익대 제14대 총장에

이동·선임

▲**申東完**(54년) 農大卒·前충남대 교수= 최근 사단법인 농업사회발전연구원에 취임함.

▲**李錫正**(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 최근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미국 과학발전협의회 회장에 선출됨.

▲**張永善**(59년) 工大卒·前대한건설협회 회장= 지난 10월 1일 사단법인 한국건설문화연구원에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趙準熙**(60년) 法大卒·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한 기구인 기창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됨.

▲**洪斗杓**(61년) 文理大卒·前KBS 사장= 지난 9월 29일 출범한 로포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孔魯明**(61년) 法大卒·前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10월 1일 언론 아시아인사이드 연 구기관인 아시아네트워킹(AAN) 회장에 선임됨.

▲**金義在**(62년) 法大卒·前대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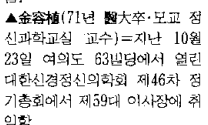
선임됨.
▲張丞珩(70년) 商大卒·전기학회
신처 장판·고려대 초빙교수)=
지난 10월 13일 해양수산부 장
판에 내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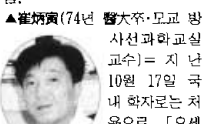
▲趙漢洙(70년) 大韓醫院卒·경상
대 교수)=지난 10월 16일 경
상대 제7대 총장에 선임됨.



▲金紅英(71년) 文壇大卒·이화
여대 교수)=
지난 10월 6일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에 임명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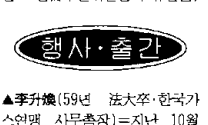
▲金容福(71년) 醫大卒·모교 정
신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46차 정
기총회에서 제39대 이사장에 취
임함.



▲李昌根(73년) 文壇大卒·광운
대 교수)=지난 10월 11일 모
교에서 열린 한국언문학회 총회
에서 차기(31대) 회장에 선출
됨.



▲崔炳寅(74년) 醫大卒·모교 방
사선과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17일 국
내 학자로는 처
음으로 「오세
아나」 초음과
의학회」 명예회원에 추대됨.



▲吳海石(75년) 工大卒·前총신
대 부총장·한
국정보지리학
회장)= 최 근
경위대 IT부총
장에 선임됨.



▲李升健(76년) ATP·국제전략
영연구위원)=최근 2년 임기의
미국 링컨대 객원교수 및 한국
분교 설립추진위원장에 유임됨.

진화를 위한 재·안전 심포지
엄」을 개최함.



▲李基俊(61년) 工大卒·모교 음
용화학부 명예
교수)= 지난
11월 6일 상남
JW에서 대포
그랜드볼룸
에서 후학들이
를 일구어 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韓相宇(62년) 音大卒·음대동
창회장)=지난
10월 29일 제
종문학회관 세
종홀에서 한국
악악인물사를
다룬 「기억하
고 싶은 선구자들」(저작선업사
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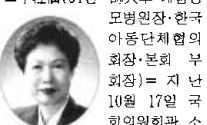
▲李炯均(64년) 文壇大卒·한국
신문방송인클
럽 회장·문화
부회장·본보
논설위원)=지
난 10월 24일
한국언론재단
에서 「한국언론의 현상과 전망」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李正洙(64년) 音大卒·강원대
교수)= 지난
10월 9~14일
춘천 문화예술
회관, 10월 29
~11월 4일 종
로 공평아트센
터에서 정년퇴임 기념으로 「신
구상 회화의 한국적 특성과 정
서 추구」라는 주제로 회화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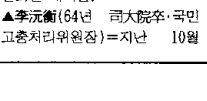
▲安東萬(64년) 法大卒·한국대
교수)=지난
10월 16일
한국교회 용인
캠퍼스 우덕홀
에서 조·홍·고
교장 및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개최된 부속
교회 설립회에 참석, 축사를
함.



▲朴柱仙(64년) 師大卒·대림성
모범연장·한국
아동단체협의회
회장·문화 부
회장)= 지난
10월 17일 국
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 「아동친권의 현황
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제12
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
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를 개
최함.



▲李聖奎(64년) 醫大卒·새서울
의원장·한국
악사 병곡회장
장)=지난 10
월 17일 서울
클럽에서 국제
클럽 한국본
부 成壽兆회장을 초청, 「문화와
악사」이란 연제로 특별강
연을 개최함.



▲李元衡(64년) 司法院卒·국민
고충처리위원)=지난 10월

20~22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
최된 2003년도 아시아올림픽
협회(A.O.A) 정기이사회에 재
정이사 자격으로 참석함.



▲南誌鉉(64년) 保大卒·대국
한대의 보전복
지연구소장·한
국보전 교육학
회(회장)=지난
10월 13일 경
상 병원에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함.



▲張文子(66년) 美大卒·서양화
가)=지난 10
월 16~25일
강남 유나호텔
에서 「길(The
Way)」이라는
주제로 제13회
개인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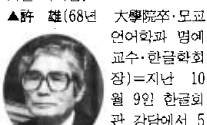
▲賈相鎭(67년) 行大院卒·前제
육부 장관)=
최근 서울올림
픽 15주년을
기념해 스포츠
외교를 통해
수집한 4백50
여 점의 기념품을 국민체육전
홍광단에 기증, 10월 31일까지
서울올림픽 기념관에서 전시
함.



▲趙曉愛(68년) 美大卒·한국현
대문화협회 회
장)= 지난
10월 11~19일
예술의 전당 미
술관에서 개최
된 「2003 서울
관화미술제」에 李賢林(77년 美
大卒)·朴順淑(79년 美大卒)등
문과 함께 작품을 출품함.



▲金泰求(68년) 音大卒·경원대
교수·마리온
)=지난 10월
26일 세종문화
회관 소극장에
서 비발디, 모
차르트, 베토
벤의 작품을 비롯해 김성태의
「추억」, 김동진 「웃어라」,
김진권의 「그리움」 등으로 독창
회를 개최함.



▲許 雄(68년) 大學院卒·모교
언어학과 명예
교수·한글학회
장)=지난 10
월 9일 한글회
관 강당에서 5
백57쪽 한글날
을 맞아 「국어문헌 공로 표창식
및 우리 말과 지식이 위축식」
등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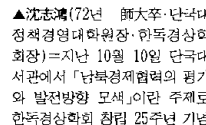
▲李吉鎭(69년) 工大卒·미시간
대학 석좌교
수·KDI 국제정
책대하원 석좌
교수)= 지난
10월 11일 미
국 미시간주립
대에서 「문화적 세계 시대에 한
국의 긴 미래를 본다」라는 주제
로 국제회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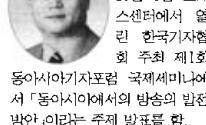
▲玉先花(72년) 家政大卒·모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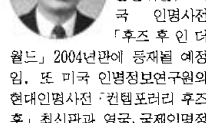
소비자운동학
부 교수·한국
가족관계학회
장)=지난 10
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
수회관 본회의실에서 결혼정보
회사 (주)선우 이윤진 대표를
초청, 「사이버 종래의 변화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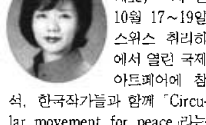
▲沈志鴻(72년) 師大卒·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장·한독경상학
회장)=지난 10월 10일 단국대
서관에서 「남북경제협력의 평가
와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한독경상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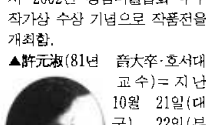
▲金仁圭(73년) 文壇大卒·KBS
이사·본보 논
설위원)=지난
10월 6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1회
동아·아기자포럼 국제세미나에
서 「동아시아에서의 방송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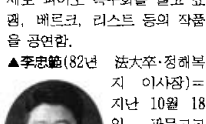
▲徐玉植(73년) 文壇大卒·前연
합뉴스 편집국
장·호남대 초
빙 교수·본보
논설위원)=미
국 인명사전
「후즈 후 인 더
월드」 2004년판에 등재됨 예정
임, 또 미국 인명정보연구원의
현대인명사전 「컨템퍼러리 후즈
우」 최신판과 영국·국제인명정
보센터의 국제인명사전 31판에
등재됨 예정임.



▲李珉柱(80년) 美大卒·3heat
rtLeeArt-F
대표)= 지난
10월 17~19일
스위스 취리히
에서 열린 국제
아트페어에 참
석, 한국작가들과 함께 「Circular
movement for peace」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침.



▲安末煥(81년) 美大卒·한국전
업미술가협회 회장)=지난 10
월 17~30일 성남 갤러리 용에서
2002년 성남미술협회 우수
작가상 수상 기념으로 작품전을
개최함.



▲許元淑(81년) 音大卒·호서대
교수)= 지난
10월 22일(대
구), 22일(부
산), 26일(예
술의 전당 리사
이름출) 「하늘
도 담고, 꿈도 담고...」라는 주
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쇼
팽, 베토르크, 리스트 등의 작품
을 공연함.



▲李忠鎭(82년) 法大卒·정혜복
지 이사장)=
지난 10월 18
일 광운고교
체육관에서 제
8회 사랑의 힘
채어 보내기 문

동 및 자선예배 「나는야, 자
랑스런 영범이 대장!」 출판기념
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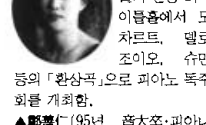
▲辛秀卿(84년) 音大卒·전남대
교수)=지난 11월 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하이든,
라벨,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
노 독주회를 개최함.



▲林達輝(84년) 音大卒·한국예
송종합학교 교
수)=지난 10
월 26일 한국
예송종합학교
KNUA 홀에서
「슈만 시리즈
III」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林慶憲(85년) 音大卒·성신여
대 교수)=지
난 10월 16일
예술의 전당 리
사이틀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열고 베토벤,
모차르트, 보케리니, 코다이 등
의 작품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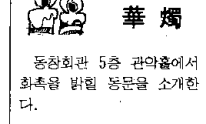
▲金在英(88년) 音大卒·수원대
교수)= 지난
10월 17일 예
술의 전당 리사
이름출에서 모
차르트, 델로
조이오, 슈만
등의 「환상곡」으로 피아노 독주
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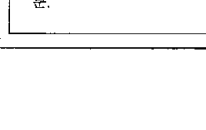
▲鄭善仁(95년) 音大卒·피아니
스트)=지난 10월 19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스토크하우
젠, 베토벤, 메시앙, 브람스 등
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都東煥(26기) AMP·민족문화
영상학회 회
장)=최근 뉴욕
에서 개최된 미
주 이민 1백주
년 기념 제21회
뉴욕 한인추석
맞이 민속대잔치 축제와 제23회
코리아페스티벌에 참석함.



▲張基善(33기) ACAD·한국지체
장애인협회 중
앙회장)=지난
10월 14~17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신체장애
자단체연합회
와 공동으로 「2003 한일 장애인
지도자 교류대회」를 개최함.
(정리=安興鎭기자)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최후를 밝힌 동문을 소개한
다.

● 최진우(93년 工大卒)·박예
진 씨=11월 22일 14시.
● 이진용(98년 工大卒)·박영
남 씨=11월 22일 15시 30
분.

행사·출간

▲李升健(59년) 法大卒·한국가
스연맹 사무총장)=지난 10월
27~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
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가스연
맹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함.



▲吳聖奎(59년) 師大卒·서울보
건대학 회장·
보태원 동창회
장)=지난 10
월 9일 국회의
원회관 소회의
실에서 안전연
대, 경기 안심련과 공동으로
「국가 재해재난 관리시스템 선

문화

신刊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成宗圭 著



기까지 우리 나라 교육과정 발전에 관한 내용을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분석·서술했다.

또 한성사범학교관계, 조선교육령, 대한민국 교육법, 교과용도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부록으로 담았다. <교육과학사刊> 값 48,000원

■반 고교, 죽음의 비밀

—文國鑑 著



명예교수)등은 명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고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6백여 점의 그림과 8백여 점의 편지를 범의학자의 눈으로 분석하여 진실을 파헤친 책.

그림 속에 드러나 있는 고교의 감정, 생각, 심리를 추리소설 형식으로 분석하여 명화를 보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한다. <예담刊> 값 13,500원

■高麗朝名家 題畵詞

—李壽子 編著



중국 동양 예술연구회 한국분회장을 역임한 李壽子 (56년 師大卒) 등문이 고려조의 역대

문집 가운데 畵譜를 위한 題畵詩를 모아 한 권에 담았다. 동양화에는 그림과 함께 제화시가 실려있다. 그림에 숨어있는 뜻을 보이고, 그림을 한층 더 감상시켜준다.

이 책은 한국화에서의 제화시를 통해 그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 제화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謙見畵刊> 값 30,000원

■세계의 언론학 교육

—元佑鉉·柳一相 著



한국언론법학회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 교수)회장과 柳一相(74년 新大院卒·건국대 교수)부회장이 세계 언론학 교육실태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학 교육실태에 대해 분석해 놓았다.

저널리즘 교육의 교과과정 편성내용과 학부과정 및 대학원 주요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해 소개하고 있다. <삼영서관刊> 값 18,000원

■독일사를 통해 본 기독교와 정치

—柳樹相 著



서울여대 국제학전공 柳樹相(68년 文理大卒·기독교한국문제연구소 회장)교수가 독일 역사의

문제를 다룬 글 가운데 기독교와 정치의 단골을 의식에 두고 쓴 것들을 한 권에 담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양극화된 세계에 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세계사적 표징은 독일의 분단이었다. 분단 독일 특히 공산 동독 속의 기독교와 이 분단의 극복 과정, 즉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의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 <대학출판> 값 12,000원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宋虎根 著



보교 사회학과 宋虎根(79년 社會大卒)교수가 펴낸 이 책은 한국사회변동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으로서의 세대문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한국사회의 중앙무대로 등장한 소위 "2002년 세대"의 화려한 데뷔에 따른 한국사회의 가치관의 패러다임적 변화 내용과 방향을 일러내고 있다.

宋교수는 이 책에서 "젊은 세

추천의窓

짜증스러웠던 제트기 굉음 이제는 그리워 스터디 클럽 만들어 연습실 자주 드나들거노

金容璫(61년 農大卒)前배치여대 교수

몇달 전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준다는 「노인복지카드」를 받고도 지하철을 탈 때마다 웬지 속스럽고 죄를 짓는 것 같은 어색함이 느껴져, 한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그러면 중 국가가 줘야만 한 혜택을 주는 데도 그것을 찾아먹지 못한다고 주위 친구들이 여러 번 지탄하는 바람에 옛것 처음으로 흰색의 지하철 무료 무대권을 이용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좌박좌박 세금을 냈음에도 여전히 뭐가 켜지고 누군가 무어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가」 고소했던 일이 있는데, 그 순간만큼 어떻게 탓할 것인가..

아마도 내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또 대학교 지인과 더불어 공부했던 농생대의 분위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한동안은 몇백, 몇 천만원 정도의 뇌물을 받고도 그것을 「떡값」이라고 우겨대더니, 요즘은 몇 십억, 몇 백 억원을 받고도 「대가상은 없다」고 우겨대며 항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너무 못한 것 같은 불쌍한 느낌이 요즘 따라 더 크게 느껴지고 있음을 어찌하랴!

돌이켜보니 모교 농대 농학학과를 졸업한지도 4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이 흘렀나보다. 느끼기로는 잊고자 할 일만 같지만, 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이런저런 추억들이 가물거릴 뿐이다. 그래도 지난 학생 시절을 회상하며 옛날 앨범을 뒤져보면, 잠시 시간이 벌써 낡은 사진들을 쓰레기로 처리하고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잠시 람이 「앞으로 자식들이 보관하지 않을 듯 싶은 해독은 기록들은 이제 하나, 둘씩 정리할 때 되었다」고 가끔 말하더니 특별히 이사를 해야 그나마 있던 것들을 없었던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생시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낙 살기 어려워서 요즘과 같이 수시로 또는 부담 없이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고 대학교복과 검정색으로 물든인 군복 2~3벌을 가지고

대학 4년 과정을 마치는 삼정이었으니,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학교 주위 연습실을 벗삼아 즐기면서 장래를 설계했던 것 같다.

요즘에야 한 가지만 특별하게 잘하면 사회에서 학계 또는 연예계나 스포츠계든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팔방미인 적인 다기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축구, 배구, 테니스 등의 운동을 즐겨 했고 이런저런 악기를 다루려고 했으며 때로는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 토론도 하며 연습실을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난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4·19 학생 때 당시 수원 교정에서 서울 종로5가의 문리대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중간 곳곳에서의 저지선을 뚫고 달려갔던 일과 수원 비평창의 공군 제트기가 이륙할



1960년 어느 사에서 동기들과 함께.(뒷줄 좌로부터 다섯 번째 필자)

때마다 굉음을 내며 감시실 위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시끄러움으로 강의가 중단되는 등 짜증났던 일들이 생각난다.

최근에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 통합되고기 때문에 그 진저리나던 제트기의 굉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 군세대에겐 이런 모든 것들이 추억거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관악캠퍼스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연관된 다른 학문도 자주 접하면서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양성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소망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 당시 신입생을 위한 柳永水교수의 특강이었던 「젊은 하루」, 한 시를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 볼까 한다.

「그대 아가네! 청춘을... / 이름 없는 들불로 사라져버림도 / 영원히 빛날 삶의 광명도 / 젊은 날의 초입에 담겼거니 / 오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 젊은 하루를 뛰우침 없이 살거나!」

후배들이여! 좋은 여건에서 더욱 분발한지!



독일 필름 국립음악대 전문연주자과정 교수 및 실내악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金容璫은 이남 윤이상, 이진용, 전상식, 코다이, 바흐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雙)

대」의 세계관에 감춰진 변종의 암호를 독해하여, 세대갈등과 문화충돌이 빚어내는 탈주와 연대의 경험을 한국사회의 자산으로 전환시켜야한다고 강조한다. <상성경제연구소刊> 값 11,000원

■남북경제교류의

법적문제

—諸成滿 著



중앙대 법학과 諸成滿(81년 法大卒)교수가 남북 경제 교류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

한 해결책에 대한 책을 펴냈다.

그동안 경제학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조망한 논문이나 저서는 많았으나, 이 책은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법적 문제 고찰과 관련 대책 개발에 관한 집합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집문당刊> 값 18,000원

公演

■金祐廷 첼로 독주회

—11월 16일 예술의 전당

첼리스트 金祐廷(93년 高대·코리안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멤버)등문이 첼로 독주회를 연다.

평생회비

▲강종호(65년 庚大卒)=50만원
▲권대형(96년 社會大卒)=20만원
▲김승환(71년 南大卒)=20만원
▲김현철(85년 經國大卒)=20만원
▲김홍근(85년 工大卒)=20만원
▲신인식(78년 師大卒)=20만원
▲오강돈(87년 社大卒)=20만원
▲오세창(417 AMP)=20만원
▲전상찬(89년 經國大卒)=20만원
▲이동호(79년 醫大卒)=20만원
▲이정호(84년 醫大卒)=20만원
▲임한배(21기 AIP)=20만원
▲정병재(71년 醫大卒)=20만원
▲주영인(70년 法大卒)=20만원
▲한경일(88년 醫大卒)=20만원
▲한대성(88년 大學院卒)=20만원
▲허 선(68년 文理大卒)=50만원
▲황예원(83년 醫大卒)=20만원

이 사

◇사회과학대학

▲김정삼씨 ▲박단순씨

◇간호대학

▲윤순남씨 ▲홍경자씨

◇경영대학

▲김도현씨

◇공과대학

▲강구선씨 ▲강기제씨 ▲강홍섭씨
▲고문찬씨 ▲곽정식씨 ▲권순영씨
▲김갑원씨 ▲김벽우씨 ▲김지섭씨
▲김호진씨 ▲김희재씨 ▲김요철씨
▲마석일씨 ▲문정규씨 ▲박준현씨
▲신재철씨 ▲어 달씨 ▲임익준씨
▲원정수씨 ▲유승빈씨 ▲윤범화씨
▲이성우씨 ▲이동춘씨 ▲이명하씨
▲이선계씨 ▲이재욱씨 ▲정명수씨
▲조병철씨 ▲조용현씨 ▲주재욱씨
▲지 수씨 ▲한수은씨 ▲황인익씨
▲황호원씨

◇농업생명과학대학

회비납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이사: 2003년 7월 21일~2003년 8월 13일 일반: 2003년 7월 22일~2003년 8월 3일〉

▲김기제씨 ▲김일종씨 ▲김장호씨
▲김현규씨 ▲손원교씨 ▲신화순씨
▲안재숙씨 ▲이재영씨 ▲정운조씨
▲홍영호씨 ▲홍현주씨

◇문리과대학

▲김경재씨 ▲김두진씨 ▲김수진씨
▲남영우씨 ▲민경환씨 ▲박 실씨
▲박의송씨 ▲박하진씨 ▲안정철씨
▲엄준경씨 ▲윤용근씨 ▲이기화씨
▲이연희씨 ▲이옥경씨 ▲이철배씨
▲전정일씨 ▲차홍봉씨 ▲최서영씨
▲한만년씨 ▲홍사덕씨

◇미술대학

▲이용환씨 ▲조승관씨 ▲황민지씨

◇법과대학

▲고홍달씨 ▲권남혁씨 ▲권준용씨
▲김기전씨 ▲김문희씨 ▲김성욱씨
▲김상곤씨 ▲김영근씨 ▲김영기씨
▲김영수씨 ▲김영일씨 ▲김영진씨
▲김용원씨 ▲김재규씨 ▲김재철씨
▲김정후씨 ▲김종일씨 ▲김종철씨
▲노명준씨 ▲류시열씨 ▲명동성씨
▲박재권씨 ▲변승근씨 ▲봉종현씨
▲서규택씨 ▲서원태씨 ▲신상규씨
▲신현무씨 ▲엄나용씨 ▲오유방씨
▲유재선씨 ▲윤덕순씨 ▲윤주원씨
▲이은규씨 ▲이영재씨 ▲이종상씨
▲이태희씨 ▲장재식씨 ▲전수안씨
▲전수일씨 ▲전웅진씨 ▲정세용씨
▲조동주씨 ▲최세관씨 ▲한광세씨
▲한준호씨 ▲황점진씨 ▲황영희씨

◇사범대학

▲공구영씨 ▲김영찬씨 ▲문용린씨
▲박병배씨 ▲박영배씨 ▲박찬구씨
▲박희문씨 ▲신문섭씨 ▲양급식씨
▲이원우씨 ▲장기욱씨 ▲정문환씨
▲정주삼씨 ▲정호영씨

◇상과대학

▲장문수씨 ▲장승구씨 ▲고두모씨
▲구신희씨 ▲권영진씨 ▲권태용씨
▲김기중씨 ▲김영식씨 ▲평동근씨
▲문화모씨 ▲박수기씨 ▲배경일씨
▲서정원씨 ▲상유경씨 ▲심재신씨
▲양만기씨 ▲우두원씨 ▲유지송씨
▲이유현씨 ▲이익지씨 ▲이정재씨
▲임창열씨 ▲전영수씨 ▲정준환씨
▲최영주씨 ▲한철수씨 ▲홍순기씨

◇생물과학대학

▲박규옥씨 ▲유효선씨 ▲정하선씨

◇수의과대학

▲김만영씨 ▲김성수씨 ▲박종영씨
▲정대연씨 ▲조병원씨 ▲최용식씨

◇약과대학

▲송희성씨 ▲신박일씨 ▲조양태씨
▲조정식씨

◇음악대학

▲이경숙씨

◇의과대학

▲강조웅씨 ▲김명준씨 ▲박경호씨
▲박문갑씨 ▲박문희씨 ▲박영원씨
▲박재갑씨 ▲박조령씨 ▲박장서씨
▲염광원씨 ▲오승환씨 ▲이기상씨
▲이명근씨 ▲정들삼씨 ▲하재안씨

◇치과대학

▲강영만씨 ▲김 성씨 ▲김경진씨
▲김광빈씨 ▲김유진씨 ▲김종호씨
▲김홍석씨 ▲명동성씨 ▲박재동씨
▲방승용씨 ▲양주열씨 ▲유정식씨
▲이석행씨 ▲이수구씨 ▲이시우씨
▲이형규씨 ▲최성근씨 ▲최재환씨
▲하상완씨 ▲황영구씨

◇대학원

▲장기화씨

◇경영대학원

▲이윤수씨 ▲한상선씨

◇교육대학원

▲송창섭씨

◇보건대학원

▲김수철씨 ▲박종진씨 ▲박희서씨

◇사법대학원

▲김용환씨 ▲정경식씨

◇언론정보학과대학원

▲김민정씨 ▲김우룡씨 ▲조용직씨

◇행정대학원

▲서삼영씨 ▲산문식씨 ▲한승수씨

◇최고경영자과정

▲정재문씨

◇국가정책과정

▲강숙지씨

일 반

◇인문대학

▲관우혁씨 ▲권인환씨 ▲김영훈씨
▲김자원씨 ▲류진영씨 ▲박상준씨
▲백기훈씨 ▲신승하씨 ▲심감수씨
▲오병갑씨 ▲윤 진씨 ▲윤경문씨
▲이선일씨 ▲이소윙씨 ▲이수정씨
▲이승렬씨 ▲이원석씨 ▲이정우씨
▲장지영씨 ▲전은옥씨 ▲정규용씨
▲정민일씨 ▲장지용씨 ▲조연동씨
▲최민경씨 ▲최우영씨 ▲최유진씨

▲최은경씨 ▲홍순관씨 ▲황규학씨

◇사회과학대학

▲강준호씨 ▲고성훈씨 ▲구성재씨
▲권형박씨 ▲김교보씨 ▲김선기씨
▲김영과씨 ▲김재중씨 ▲김정영씨
▲김정훈씨 ▲김준석씨 ▲명주석씨
▲문형진씨 ▲박 준씨 ▲박 진씨
▲박수진씨 ▲박요한씨 ▲박종욱씨
▲박준식씨 ▲박철순씨 ▲박호성씨
▲박희영씨 ▲서보선씨 ▲서의근씨
▲서정환씨 ▲성병재씨 ▲송재혁씨
▲신상조씨 ▲안현실씨 ▲여성운씨
▲유진석씨 ▲윤오필씨 ▲이 백씨
▲이건택씨 ▲이계원씨 ▲이목희씨
▲이순철씨 ▲이윤석씨 ▲이종원씨
▲이주형씨 ▲임상준씨 ▲임목형씨
▲임종순씨 ▲장홍근씨 ▲장진호씨
▲정동철씨 ▲정민호씨 ▲정진영씨
▲정재선씨 ▲조태형씨 ▲주진혁씨
▲최승규씨 ▲최인식씨 ▲한경구씨
▲한성수씨 ▲홍서준씨 ▲황영철씨

◇자연과학대학

▲공형식씨 ▲권경훈씨 ▲김 룬씨
▲김기철씨 ▲김영규씨 ▲김요순씨
▲김우식씨 ▲김국매씨 ▲김종권씨
▲김일종씨 ▲김종달씨 ▲박찬호씨
▲박범화씨 ▲서동석씨 ▲송세안씨
▲심재우씨 ▲유병수씨 ▲유재홍씨
▲유형관씨 ▲이상갑씨 ▲이승구씨
▲이용일씨 ▲이재철씨 ▲이종교씨
▲정영철씨 ▲조상욱씨 ▲진효룡씨
▲최승수씨 ▲황광삼씨

◇간호대학

▲강성숙씨 ▲김병숙씨 ▲박연우씨
▲백원림씨 ▲송현숙씨 ▲우정순씨
▲이경숙씨 ▲장명숙씨 ▲지영숙씨

◇경영대학

▲강성진씨 ▲강종선씨 ▲구본수씨
▲국기호씨 ▲권지원씨 ▲김영현씨
▲김지용씨 ▲김찬열씨 ▲김한국씨
▲노석근씨 ▲노재성씨 ▲문성운씨
▲박용환씨 ▲박재홍씨 ▲박운기씨
▲성기현씨 ▲신석영씨 ▲오성탁씨
▲우정영씨 ▲이강욱씨 ▲이해성씨
▲이현우씨 ▲임근성씨 ▲임정오씨



동창회보를 읽고

숨은 보석 찾는 심정으로 읽어야

張潤宇(62년 美大卒)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



지난 10월 19일, 어느새 25년에 이르는 서울대총동창회 주최로 개최된 Home Coming Day 행사 겸 동문 가족 동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엔 비 때문에 강당에서 약식으로 진행됐고 그 전 해에도 가을 단풍과 모교의 절경인 관악산의 기운을 흠뻑 맞고 싶고 산행모임에 동참한 바가 있기에 술한 동문 가족들 사이에 끼어서도 과히 낯설지가 않았다.

추석이 완연한 관악산 허리, 계곡을 따라서 삼마사 열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동문들, 30대 초반에서 70대까지, 공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수목원에 이른다. 그야말로老少同樂이다. 어찌할 동창회보 가자의 원고청탁이 있었기에 의도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최근 동문들의 모습과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했었는지도 모른다.

1962년, 돌이켜보면 아스라한 세월이다. 참혹한 전쟁 이후의 황폐한 서울, 그 속에서도 꿈에 그리는 국립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한 기쁨과 우여곡절의 학창시절,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혁명, 민주화투쟁, 이후 군복무를 거쳐 학부를 졸업하고 위에서 교육대학원까지 수료했다.

그로부터 40년, 예로부터 인생 70이 가을이라고 했거늘 어찌 보면 너무 오래

버티고 사는 게 아닌가 하면서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쩌다 모교를 떠올리기도 하면 금시 만면에 흥호가 피고 마음이 청춘으로 설레며 어느새 모교 캠퍼스로 달려가곤 했다.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동창회보가 여기에 한 몫을 단단히

“

세계화된 모교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길

바란다

”

하는 것만 같다.

모교에 가는 향수가 동창회보를 통해 작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서울 산대출신인 마대 동생이 그물고 마대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웠던 시절의 모교캠퍼스가,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림다. 60년대 초, 이 무렵엔 너나없이 가나왔고 캠퍼스 환경도 열악하고 모든 게 형편이 없었다. 그림자에 더욱 애뜻하고 지을 수 없는

낭만이었던가.

회보의 성격은 지명하다. 회합상호간의 친목과 화합, 애경사 등 근황과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이야기, 특히 알려진 일이나 동문들보다는 그늘진 곳에서 기여이 모습을 들어내지 않으니 겸사하는 동문들의 소식, 모교와 후배 동기, 세계화한 오늘의 서울대의 면모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세계 유수 대학교와의 교류 및 투루기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창회보의 구성구석까지 살펴며 홈페이지까지 뒤적이는 습성은 내 자신이 서울고교 동창회보편위원을 맡았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나 누구보다도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들의 활약을 기뻐하며 영원한 '서울맨'으로서의 보람을 음미하고자 해서일까. 한번 훑어보면 내뽐게쳐버린다는 소견도 있었다. 유머감각이 아슬다는 예기도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동창간에 유대가 희박하고 흩어진다든 우르도 높다. 走馬加鞭—달리는 말에 제책잡힌다는 뜻으로 잘 나가고 있으나 더욱 가다듬고 수심만 동문의 작은 목소리, 숨소리에까지 귀기울이고 들여다보는 신문, 국내외 동문과 재학생을 연결하는 駁路를 터놓는 회보이길 당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히는 신문'이 되어야겠다. 가까이 회

비를 납부하고 회보가 기다려지는 동창회로, 숨겨놓은 보석이라도 캐내려는 심정으로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즐겁게 읽히지는 언론매체가 되기를 믿고 기대한다.

지난 10월 어느 날, 국내에서 구름같이 밀려온 동문 가족 동반대회에 함께 참여하며 세월은 가도 동문의 우의와 열거는 영원하다는 것을 느꼈다. 한 폭의 歸來辭였다. 아름다운 모교캠퍼스, 관악산의 가을 단풍과 정기, 천고마비의 절후른 하늘, 헤어짐이 아쉬워 내년을 기약하며 부르면 교가협창—이런 일들이 모교 사랑과 개인, 가족의 건강을 다지는 일한이기에 우리 동창회를 사랑한다. 동창회보의 가고 역할에 만족한다. 鄭成世인사의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聖靈'의, 일부를 인용하며 아쉬운 글을 맺는다.

“그 누가 길을 묻거든 / 눈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 이마가 시원한 봉우리 / 가슴아마다 어린 예지의 瑞氣 / 오랜 추라기의 地脈을 찾아 내린다, / 원문의 이슬이 시운의 산들에 내리듯이 / 冠岳의 이마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쁨이여 /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어 / 겨레의 업으로도 기억할 이 날 / 헤어졌던 이마를 비로소 마주대고 / 여기 새로 땅을 열여 / 한 열의 슬픔을 불 밝히나 / '진리는 나의 빛...'”

동문들 활약상에 자긍심 느껴

李承鎭(02년 大學院卒)이화여대 교수



우리 총동창회 지프는 참여와 협력 그리고 열광일인데,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역할이 막중하고 분주하게 생활을 하다보면 본래 의도와는 달리 동창회 참여에는 소홀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30~40대에 이르러서 더 두드러지는데, 전후와우 단파에서 여유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바 소임이 크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그저 앞만을 주시하면서 마냥 달려나가 기에도 솔직히 기쁨 베풀다. 협력 역시 마릿속 이해에 그칠 뿐, 두루 널리 실천해서 많은 동문들과 후배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젊은 날, 단어만으로도 가슴 박차면 열광이란 말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저 가끔씩 수동적으로 동창회보를 받아보고 출렁하진 산배남들과 앞선 동문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존경의 마음과 함께 스스로는 냉성의 기회를 갖곤 하는 것이 가장 요즈음 나의 모습인데, 난데없이 회보를 받아보는 소감을 적어 보내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다. 매일같이 정공대면서도 한 자 적지를 못하고 자주 고만만 하다보니 어느새 내일이 마감날이다. 이미 늦은 시간, 밤도 깊었으니 잠자리에 들자면 나 홀로 원성을 보아야만 하겠다.

관악후추, 느티나무 광장, 등문 길림 등을 읽으면서 배우는 바 적지 않고 내 용에 동참하기도 하면서, 동창단을 통해 동문들의 눈부신 활약상에는 자긍심을 느끼고 기분 좋은 자극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문화대산을 보면 새로운 책들이 동문들의 손을 통해 끊임없이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획 뿐, 참석하지 못한 10월의 친목 동산대회에 내년에는 반드시

“

단체·학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좋은 목적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

”

함께 하리라 다시 마음을 먹었다. 그밖에도 장학금 지급 소식과 중국 연변의 구개일 무료수술 봉사활동 소식 등이 작금의 불안한 정치와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 어려워지지만 한과도 이곳 저곳으로 부터 비명처럼 들려오는 현실 경제소식과도 한참 거리가 있는, 신선한 우리네 굿뉴스로 삶에 지쳐가는 지성인들은 어느 정도 청량감을 맛본다.

홍익인간을 최상위 가치로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Servant Leadership」으로 무장, 「Elite」로서의 자질을 닦고 남달리 강한 책임감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룰도록 실천하면서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갈 일이다. 앞으로는 동창회보에도 자발적인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보다 다양한 견해와 색다른 시각의 활자화 우리의 지성을 더 풍요롭게 하고 역동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만들어져 다양하게 가공되고 있는 여러 단체대학 또는 다양한 동아리나 파벌 단위 홈페이지 등에 올려져 있는 동문의 글들을 다한 순발력을 발휘하여 좋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여러분 시절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가급적 편견이 없고, 가능한 남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실천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실천하지 못한다면 누가 모범을 보일 것이며 세상의 동행 역할을 하려 들것인가. 더욱이 대단히 복잡하고도 고도로 교묘해진 이 사회에서 완성도 높은 봉사할 하겠다면 메시에 그 태도로 겸손까지 해야 하는데 부단한 연습과 단련이 필요하다. 이제 더욱 가치 있을 동창회보로서 발전하고 미래를 위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역사적인 요구에 부응할 여러 가지 준비를 동문들과 더불어 시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